

# Sulwhasoo

Vol.60 January/February 2014



나비 당초분 건칠 향아리와 진주 고이뎡기



梨花秀

梨花秀

# 어려 보이는 얼굴의 비결- 팔자에 일침을 놓다 설화수 예소침크림&패치

1cm 더 패일 때마다 6년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팔자주름-  
주름으로 굳어진 피부부터 풀어주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팔자부위를 이중으로 집중 케어하는 예소침크림&패치-  
주름기능성크림이 얼굴 전체 탄력이 무너져 생긴 팔자주름을 관리하고,  
붙이는 한방필러패치로 피부 팔자부위를 자극하여  
앞서 바른 크림의 영양성분을 피부 속에 흡수시켜 탄력을 개선합니다  
되돌리고 싶은 팔자, 이제 예소침크림&패치로 팽팽하게 다스리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예소침크림&패치

## Sulwhasoo



효소처리 홍삼사포닌과  
히알루론산 성분의  
한방필러패치



## 윤태 나다

Yuntae is defined as looking radiant. Yun refers to the statement, “The leaves glow as it rains in a leap month to dampen the soil and grow the grass.” The people who have helped in cultivating the plants are Sugok Son, Dae Hyun (the lacquer master registered as Seoul Intangible Cultural Asset #1-3), and Designer Kim, Young Jin (a.k.a. Chai). Mother-of-pearl is also called jewelry furniture with its elegant shape and exquisite colors. Sugok Son, Dae Hyun is focused on reproducing the Goryeo Dynasty relics when the mother-of-pearl was first developed, and then introducing the Korean-style mother-of-pearl to the rest of the world. Designer Kim, Young Jin boldly combines the originality of Korean costumes with crystal, Italian lace, English embroidery, and other unexpected objects in order to create his own unique style. The combination of Korean patterns and technology on the mother-of-pearl, together with the unique style of the Korean wardrobes, has given birth to Yuntae.

가장 한국적인 문양과 기술로 빚어진 나전 작품과 독보적인 스타일의 한(韓) 스타일 복식이 만나 ‘윤태(潤態)’가 되었다. 윤태는 윤기가 흐르는 모습을 이른다. 윤(潤)자는 ‘윤(潤)달에 비가 내려 물(水)이 땅을 적서 초목이 잘 자라 앞에 윤이 난다’는 뜻. 건강한 대지 위에서 나고 자란 식물의 생명력처럼 윤기 나는 자태를 만든 이는 서울시무형문화재 제 1-3호 옷칠장 수곡 손대현과 디자이너 차이의 김영진이다. 나전(螺鈿)은 우아한 형태감과 오묘한 빛깔의 자개 조각이 어우러져 주얼리 퍼니처로도 불린다. 수곡 손대현은 나전이 정립되었던 고려시대의 유물을 재현하는 한편 해외에 나전을 소개하는 일에도 부지런하다. 디자이너 차이의 김영진은 한국 복식의 오리지널에 크리스털과 이탈리아의 레이스, 영국의 자수 등 의외의 오브제를 과감하게 접목해 독창적인 스타일의 한국 복식미를 선보이고 있다. S

**표지**는 나비당초문 일주반과 레이스 족두리. **뒷표지**는 비선도 흑칠 선비 경상과 명주 저고리. **오른쪽 페이지**는 국당초문 대모복채 나전 모자함과 배씨 땀기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세트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작품** 수곡 손대현(010-5259-5725), 차이 김영진(02-333-6692)





한국 문화 읽기	해금 Haegeum	04
집 단장	반가운 새해 인사	08
몸 단장	은은하게 피어나는 멋스러움	10
피부 섬기기	태생부터 다른 귀함	12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과르텟 엑스, 손에 잡힐 듯 가깝게	16
격조 높은 삶	계절제가 열리다	22
세시풍속 엿보기	풍속에 깃든 염원, 설과 대보름	24
어우러지다	희망을 새로이 여미다	28
살펴보다	풍속, 축제가 되다	36
세밀하게 보다	희다, 상서롭다	38
설화수의 사계	눈꽃 나무가 되다	48
월드 헤리티지	빛의 예술, 라리크(Lalique)	52
아트 클래스	탁월한 그림꾼 마리스칼	58
잇다	세월을 '잇는' 내림이 내일을 '잇게' 하다	64
설화보감	복을 부르고, 향기를 머금고	70
설화수를 말하다	지음생, 인삼으로 피부를 깨우다	76
설화도감	소복소복 눈 쌓인 풍경	80
미색보감	정성스러운 손길로 아름다움을 되찾다	84
설화과학	고서에 숨겨진 고운 피부의 비결	86
마음 단장		88
문화 즐기기		92
설화수 뉴스		93
Inside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 Sulwhasoo

January/February 2014

## 자연과 상생하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한방 성분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이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상생(相生)하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과의 상생,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예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여성을 위한 문화 교양지를 뜻합니다.  
 전통적인 것이 선사하는 단아함을 현대적인 미감과 접목한 전통과 현대의 상생을 추구합니다.



Sulwhasoo, which conveys the Asian philosophy and Korean wisdom, has combined the aesthetic appeal of both harmony and accord. The cover of this issue of Sulwhasoo magazine seeks this combination through the Sangsaeng of a Korean traditional master and a contemporary artist. The Jan/Feb issue has created Yuntae through the work of Son, Dae Hyun (the lacquer master registered as Seoul Intangible Cultural Asset #1-3), and the work of Designer Kim, Young Jin (a.k.a. Chai).

아시아의 철학과 한국의 지혜를 담은 설화수에는 조화와 어울림의 미학이 들어있다. 설화수 매거진의 표지에서는 한국의 전통 장인교 현대 작가의 작품이 빛어내는 '상생'을 통해 조화와 어울림의 미학을 찾아보고자 한다. 1/2월호에는 서울사무형문화재 제1-3호 옷칠장 손대현과 디자이너 차이 김영진의 작품이 어울려 '윤태(潤態)'를 만들었다.

●발행인·사경혜 ●편집인·유재현 ●발행처 (주)인팩(인팩)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번지 시그니처빌딩 ●제작·Luxury MC 팀 ●문의·태윤희 02)709-5525  
 ●편집, 디자인·Solution Co., Ltd.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김희성 신정희 디자인·조윤형 ●발행일·2014년 1월 1일(통권 제60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Et Photoengraving lng Process ●인쇄 (주)태산인팩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경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 해금 Haegeum

두 줄의 현에서 피어나는 신비한 소리

해금은 최근 드라마 OST에 연주곡이 삽입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해금 전문 연주자도 생겨나고, 해금 독주곡과 협주곡도 만들어지고 있다. 해금의 슬픈 듯하면서도 감수성을 자극하는 음색은 듣는 사람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해금이 단 두 줄로 연주된다는 사실은 더욱 신비하다. 퀴즈에 종종 해금이 몇 줄로 되어 있는지 출제될 정도로 두 줄 현악기란 사실이 쉽사리 짐작하기 힘들 정도다. 두 줄로 연주하는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음역도 넓고 표현력도 풍부해 더욱 놀랍다.

해금은 현악기이면서도 관악 합주에 반드시 편성되어 관악기와 현악기의 균형을 유지해 주고, 또 궁중음악에는 물론 민속악, 무용 반주악에서도 피리, 대금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락악기다. 국악기 제작의 8가지 재료인 8음을 모두 갖춘 악기는 이 해금뿐이다.

말총으로 만든 활을 안줄과 바깥줄 사이에 넣고 문질러 소리를 내는데 울림통과 두 줄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원산(북쇠)으로 이것의 위치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달라진다. 또 일정한 음자리가 없이 줄을 잡는 손의 위치와 줄을 당기는 강약에 따라 음높이가 정해진다. 해금의 몸체에서 중요한 부분인 통은 화리(華梨)나 산유자나무로 만들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대나무 뿌리를 10센티미터 정도의 길이로 잘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금은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비교할 때 바이올린에 해당하는 악기라 할 수 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등의 찰현악기들은 주선율과 대선율, 그리고 화성적인 부분을 연주함으로써 음악의 주제와 함께 전체적인 볼륨감을 풍성하게 한다. 국악기에서 찰현악기는 해금과 아쟁뿐인데, 저음부의 화성을 담당하여 앙상블에 안정감을 준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처럼 중음역대와 고음역대의 성부를 담당하여 주제선율과 대선율, 혹은 화성적인 부분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해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There was a musical piece played using a Haegeum, which has been featured on a TV series recently, and it received positive feedback from the viewers. Currently, there are professional Haegeum performers, and solo and duet pieces are written for this musical instrument. Haegeum's somewhat sad and sentimental sound is fascinating to many people.

The fact that the Haegeum only has two strings is truly unexpected. Many people are unaware of this and, as a result, it is often asked on TV quiz shows. It is amazing because it can play a wide range of notes and it can also evoke various emotions despite its limited number of strings.

Haegeum is a string instrument, however, it is always added to the wind orchestra for the balance of wind and string instruments. It is also the major instrument used in palace music, folk music, and accompaniment music for a traditional Korean dance, along with the Piri and Daegeum. Haegeum is the only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that is capable of playing all of the eight notes of a traditional Korean music. The bow, which is made with horse tail, is inserted between the inner and outer strings in order to make a sound. The Wonsan (Buksoe), on the other hand, connects the body with the two strings, and its position alters the volume. The pitch is determined by the position of the hand on the string, and the strength used in pulling the strings.

Tong,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body of Hae-geum, used to be made of hard wood called Hwari or Xylosma congesta, but these days, it is generally made of bamboo roots cut into 10 cm in length. Thick bamboo roots are cut and shaped. Hae-geum plays the role of the violin in the western orchestra. String instruments such as the violin, viola, and cello account for the main theme, the counter theme, and the harmony, expressing the theme of music and its overall magnificence. Hae-geum and Ajaeng are the only strings



과거에는 '깡깡이', '앵금' 등의 별명으로도 불렸는데, 깡깡이란 말의 유래를 보면 참 재미 있다. 거리의 걸인들이 '걸림'을 하면서 걸림의 댓가로 연주를 하던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많다. 마치 유럽의 집시들처럼 말이다. 남의 대문 앞에서 밥을 달라며 해금을 연주하면 집주인은 그 소리를 듣고 밥을 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깡깡이'라는 별명은 거지와 만나게 되어 '거지 깡깡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또 중국 '얼후'의 원조로 알려진 '마두금'에서 비롯되었다고도 전해진다. '마두금(馬頭琴)'이란 말은 '말을 타면서 연주하던 금'이라는 뜻으로 잘 달리는 말 위에서 연주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장치가 필요했다. '해금'이라는 말은 이런 마두금을 즐겨 연주하던 중국 오랑캐 부족의 이름이 '해족(奚族)'이라는 데서 유래한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 해금이 수입된 것은 1493년 성현이 쓴 <악학궤범>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특히 고려시대 때 널리 연주되고 사랑받았다는 사실은 <청산별곡>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애정지 가다가 드로라/  
 시슴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을 해거를 드로라/  
 알리 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 노래에 유독 해금이라는 악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면 당시에도 해금 연주가 신기하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마치 시슴이 짐대에 올라 해금 연주를 하는 것처럼 표현한 구절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신선하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참고서적 <우리악기>(심인택, 문화재청) 도움 주신 곳 고흥군국악기연구원 (02-763-3508)

used to play these roles and add stability to the ensemble by creating harmony for the low notes. The role of Hae-geum is even more important because it also plays medium and high notes as the violin or viola for the main theme, the counter theme, and the harmony. The Haegeum was formerly known as the Ggang-ggang-i and Aeng-geum. The origin of Ggang-ggang-i is very interesting. Many people say that it originated from the music performed by the homeless people on the streets, which was similar to how the Gypsies performed in Europe. They played music using Haegeum in front of a person's house, and the owner of the house would give them food in return. The nickname was later used in association with a homeless person.

Haegeum originated from Madugeum, which is also the origin of the Erhu (a Chinese musical instrument). Madugeum means 'Geum performed while riding on a horse', and a special device is needed to keep the instrument on the body in order to play it as such. It is said that the Haegeum originated from Haejok, the name of a Chinese tribe that used to perform using a Madugeum. The record of its introduction to Korea was found in the Akhak gwebeom, which was written by Sung, Hyun in 1493. Cheongsan-byeolgok revealed that the Haegeum was widely performed and loved during the Goryeo Dynasty.

Ga-da-ga Ga-da-ga Deu-ro-ra Ae-jeong-ji Ga-da-ga Deu-ro-ra  
 (Go, as you go, and at the remote kitchen, listen)

Sa-seum-i Jim-dae-e Ol-a-seo Haegeum-eul Hae-geo-reul Deu-ro-ra  
 (To the sound of a deer climbing on top of the pole and playing the Haegeum.)

Yal-li Yal-li Yal-la-seong Yal-la-ri Yal-la

Considering that the Haegeum is mentioned in this song, which is popular across Korea, it seems that this musical instrument was already a marvelous object in the past. It is entertaining to imagine a deer standing on a Jimdae while playing the Haegeum.





## 반가운 새해 인사

마음을 전하는 일만큼 특별한 일이 있을까. 한 해의 감사한 마음을 선물에 가득 담아보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처럼 반가운 새해가 밝았다. 그동안 고마움을 전할 길이 없었던 친척과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해 보면 새해의 의미가 남다를 것이다.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음력 정월 첫날에, 붉은 콩 한 알을 종이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 종친들에게 보냈다. 정월에 주머니를 차면 그해 내내 귀신이 물러가고 만복이 온다고 믿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해를 맞아 전통의 멋을 지닌 선물에 선조들의 마음을 담는다면 선물을 받는 이들에게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집 안을 장식할 수 있는 소품이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 중 멋이 더해진 것들을 골라보자. 맛있는 벽을 장식해 주는 그림,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좋을 초, 주방 분위기를 바꿔줄 잔이나 수저 세트 등 작은 소품 하나만으로도 신선한 분위기가 느껴질 것이다. 또 새해 선물의 의미는 특별하다. 1년 내내 그 선물을 준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떠올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KCDF갤러리숍(02-733-9041), 공평아트숍(02-3210-0071), 효재(02-720-5393), 금단체(02-517-7243), 진주셀(02-2253-7585), 북촌상회(02-747-0423)

1 돈주머니가 달린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방식은 효재. 2 반짝거리는 자개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물결 무늬 모양의 접시는 진주셀. 3 촛대나 장식용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화병은 KCDF갤러리숍. 4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색감의 쿠션은 정순주 작품으로 공평아트숍. 5 참나무 모양으로 내추럴한 멋을 지닌 캔들은 KCDF갤러리숍. 6 옷칠이 된 잔에 정교하게 조각을 새겨넣은 잔 세트는 청봉 작품으로 공평아트숍. 7 친환경 소재인 광목 원단에 고운 꽃 자수가 새겨진 주방장갑은 효재.

8 은은한 황금빛이 고급스러워 보이는 포장 보자기는 효재. 9 장수와 다복의 상징인 포도를 새겨넣은 전통 분청기법의 수저통은 KCDF갤러리숍. 10 멀리서 보면 화분으로 보이는 재치 넘치는 카드 세트는 문순원 작품으로 공평아트숍. 11 손잡이 끝에 골드로 포인트를 준 은수저 세트는 금단체. 12 자개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책상용품은 북촌상회. 13 부귀영화를 뜻하는 묵단과 나비 문양을 새겨넣은 장식용 액자는 진주셀.





## 은은하게 피어나는 멋스러움

신년 한복 맵시를 좀 더 모던하고 우아하게 완성하고 싶다면 은은한 멋을 지닌 진주 장식으로 여성스러운 멋을 더해 보자.



1 진주를 꽃잎으로 표현한 브로치는 아원공방. 2 여러 알의 진주들이 조화롭게 장식된 팔찌는 더퀵라운지. 3 하얀 진주와 흑진주, 은과 금이라는 다양한 소재가 조화롭게 어울린 브로치 겸용 목걸이는 아원공방. 4 담수 진주로 만든 긴 줄의 목걸이는 에스테라. 5 팔찌는 소사이어티골든제이. 6 포인트를 주기에 좋은 진주 칼라는 더퀵라운지. 7 하얀 자개 트레이는 정경선 작품으로 KCDF갤러리숍. 진주 모양의 자개는 진주젤, 진주목걸이와 머리 장식은 더퀵라운지, 진주로 장식된 뒤통이와 하늘색 뒤통이는 아원공방, 대삼작 노리개 장식은 가원공방, 산호와 담수 진주로 장식된 뒤통이는 갤러리 미가. 진주알들은 더퀵라운지.

우윳빛 광택이 우아한 진주는 동서양 여성들의 보석함에 하나씩은 자리한 보석이다. 서양에서 진주는 '예언의 빛' 혹은 '천사의 눈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 옛 궁중 여성들도 애증하던 보석이였다. 특히 중요한 의식이 있는 날이면 왕비를 비롯한 상류층 여인들은 가체에 뿔잡으로 멋스럽게 장식했다. 뿔잡은 진주와 칠보 같은 보석으로 장식해 화려한 멋을 더했다. 쪽진 머리 뒤에 꽂는 뿔잡이 역시 매화, 나비, 봉황 등의 장식과 함께 진주, 비취 등을 사용해 더욱 기품 있고 고상한 멋을 냈다. 그만큼 진주에서 느껴지는 신비한 광채와 감출 수 없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을 매료시켜왔다.

단조로운 겨울 패션에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싶다면 진주 장식의 장신구를 이용해 스타일을 완성해 보자. 또 진주는 한복과도 매우 잘 어울린다. 하얀 진주귀걸이로 한복 스타일에 우아한 멋을 더해 보자.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임태준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더퀵라운지(02-548-7218), 아원공방(02-735-3482), 진주젤(02-2253-7585), 가원공방(02-2278-0250), 소사이어티골든제이(070-8252-4288), 갤러리 미가(02-3453-9797), 에스테라(02-722-2007), KCDF갤러리숍(02-733-9041), 공평아트숍(02-3210-0071)





## 태생부터 다른 귀함

해가 바뀌면 여자는 오히려 한 살 더 젊어 보이고 싶다. 안티에이징의 기본은 피부 안팎을 촉촉히 채우는 것. 피부 나이를 케어하는 방법, 그 태생부터 귀하게 제조된 윤조에센스와 자음생 진본유에 답이 있다.



‘피부가 나이 든다’는 것은 피부의 수분량과 보호막 기능이 저하되고, 피부결이 흐트러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가장 기본은 유수분 밸런스를 잘 유지해 윤택한 피부로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실내외의 큰 온도차와 매서운 바람까지 불어대는 겨울이면 노출이 많은 얼굴 피부의 건강을 오롯이 지키는 일이 더 쉽지 않다. 기본부터 충실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여 피부를 보필해 주어야 하는 시점이다.

설화수 제품이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동서양의 많은 여성들이 아시안 뷰티의 자긍심으로 불리는 설화수 제품을 찾고 있다. 설화수 제품의 이런 위용은 그 태생에서 나온다.

설화수의 모든 제품은 과학적으로 체계화된 성분과 가공법을 고수해 탄생한다. 여기에 국산 원료를 선별하여 사용하는 자부심이 더해졌다. 친환경 재배지로 유명한 제천시와 협약해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거나 지리산 청정지역의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 수급이 어려운 희귀 성분은 AP약초원에서 연구하고 재배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원료가 가진 효능을 한층 높여주는 설화수만의 ‘포제법’이 더해지니, 말 그대로 태생부터 귀한 제품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의 산물이 윤조에센스에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7년 설화수의 탄생과 함께 출시된 윤조에센스는 설화수의 No.1 에센스로 불리며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의 뷰티 시크릿이 되었다. 윤조에센스 명성의 비밀은 역시 좋은 원료와 탄탄한 기술의 결정체라는 점에 기인한다. 작약, 연자육, 옥죽, 백합, 지황의 다섯 가지 한방 식물을 추출하여 섬세하게 조합한 자음단(滋陰丹)으로 피부 음양의 상생을 도와 윤택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이 된다. 한 가지 더 주목받는 이유는 베이스가 다르다는 것. 윤조에센스는 여러 성분들을 조화롭게 해 주는 맥문동과 감초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다.

Skin aging begins with loss of moisture, weakened protective barrier, and skin irritation. Basic skin care requires oil-moisture balance for a more refined look. It is more difficult to protect the skin on the face during extreme temperatures and exposure to cold winds in the winter. In order to prevent this, you should choose skincare products that are formulated with the necessary nutrients and treatment.

Sulwhasoo products are gaining popularity all over the world. Many women in the East and West prefer to use Sulwhasoo products, which are known as the pride of Asian beauty. The reputation of Sulwhasoo products is based on its history.

Almost every products of Sulwhasoo are created with scientifically engineered ingredients and methods, and they are proudly combined with locally-grown ingredients. It has an agreement with the Jecheon City, which is famous for promoting eco-friendly cultivation, to use only environmentally friendly ingredients. It also uses the ingredients that come from the natural regions of Mt. Jiri and cultivates rare herbs at the AP Herbal Garden. In combination with the unique Poje method(a course of processing oriental medicine ingredients with various methods of roasting, steaming or fermenting) of Sulwhasoo for enhanced efficacies, a revolutionary product line has been bor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is the essence of Sulwhasoo’s endeavors. Also known as Sulwhasoo’s No. 1 serum, which was released in 1997, it has become the beauty secret of many women.

The secret of First Care Activating Serum’s fame results from quality material and solid technology. By extracting five oriental medicine plants of Paeonia japonica, Nelumbo nucifera, Polygonatum officinale, Lily, and Rehmannia glutinosa and mixing them deli-

풍부한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필해 주는 윤조에센스는 설화수의 No.1 에센스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선물 한지는 종이나무갤러리.



피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선택해도 그 좋은 성분이 피부에 잘 흡수되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 어렵다. 화장품들이 잘 흡수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윤조에센스는 세안 후 첫 번째로 바르는 부스팅 에센스로 풍부한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 기본 바탕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윤조에센스를 사용하는 많은 이들이 피부의 땅김 현상이 줄고, 피부에 생기가 돌고 건강해졌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는 이렇듯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촉촉하고 윤기 있는 제품에 대한 여성들의 열망을 채워주는 또 하나의 제품이 있다. 바로, 자음생 진본유. 오일 에센스는 그 효과를 즉각적으로 실감할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많은 브랜드에서 오일 에센스를 선보이고 있지만, 자음생 진본유는 윤조에센스처럼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올레산과 오메가-9지방산 등의 성분이 피부의 힘을 키워주어 피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삼 종자유를 넣었다. 피부를 맑은 빛으로 케어하기 위한 동백유와, 피부를 탄탄하게 케어하기 위해 참깨를 생으로 짜낸 호마유도 들어 있다. 아침에 사용하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주변 환경으로부터 하루 종일 피부를 지키고, 저녁에 사용하면 건강하고 탄탄한 피부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윤조에센스는 은은한 내추럴 허브향으로, 자음생 진본유는 쉑과 솔 등의 자연의 향이 함유되어 바르는 내내 코가 먼저 행복해지는 제품이다. 심신이 피로한 겨울 피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S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도움 주신 곳 종이나무 갤러리(02-766-3397),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오일 제형 특유의 녹진함이 없는 빠른 흡수력으로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자음생 진본유는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동시에 노화 예방 및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 백자 호롱은 정소영의 식기장.

cately into Jaumdan, it helps the coexistence of skin Yin and Yang making glowing and gorgeous skin.

Another reason why it gained attention is that it has a unique bas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uses liriopie platyphylla and licorice root extracts to harmonize the ingredients.

No matter how good your cosmetic products are, they are not going to be effective if they do not penetrate the skin. The first step requires clearing the skin pore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is the boosting serum formulated to be used after cleansing. It moisturizes and improves the elasticity of the skin. Many of its users agree that it reduces dryness, resulting in a more vibrant and healthier looking skin because it sticks to the basics.

There is another product that fulfills women's passion for supple and glowing skin. It is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The oil serum delivers instant results and has been a great hit worldwide for the past couple of years. There are many other brands that carry oil serum, but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is widely loved for its efficacy.

It is formulated with oleic acid, omega-9, and ginseng seed oil to help fortify the skin. Camellia oil is added in order to clarify the skin and fresh sesame oil is added for firmness. Use in the morning to protect the skin from the harsh environment, and in the evening for healthy and supple ski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diffuses the subtle scent of natural herbs, whil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has the natural scents of mugwort and pine that give off very pleasant fragrances whenever you use them. They will help refine your skin, as well as your body and mind this winter.



## 콰르텟 엑스 손에 잡힐 듯, 가깝게

웃음과 수다가 서로 몸을 기대듯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 촬영 중인 이들을 엿본다면 가족 음악단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연스럽게 서로의 체온을 공유했다. 음악 이전에 삶의 색깔이 비슷해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 있다는 듯.



왼쪽부터 첼리스트 임아령, 비올리스트  
김희준, 제2바이올리니스트 박소연,  
제1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



클래식은 옛 연인 같다. 종종 궁금하지만 선뜻 다가가기엔 부담스럽고 때론 낯설기도 하다. 대중가요를 듣다 시  
 챗말로 꽃히는 사람은 많아도 클래식 세상에서 이러한 일은 가끔 들리는 풍문처럼 빈도가 낮다. 모순적이게도  
 옛사람들의 대중가요는 이제 더 이상 대중적이지 않아, 이 시대의 연주자에게 '대중과의 소통'이란 무거운 숙제  
 까지 안겨주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제 소통은 선택할 여지조차 없는 생존의 문제다.

현악 4중주단 콰르텟 엑스(QUARTET X)는 다소 수동적인 클래식 음악계에서 한껏 '튀는' 존재다. 대중에게 먼저  
 손을 내밀거나 관심을 이끌어내는 액션을 자주 취한다. 하기가 첫 시작부터가 심상치는 않았다. 팀을 결성하고 2  
 년 뒤인 2002년 무대에 올린 첫 공연 제목부터가 '거친 바람 성난 파도'였으며, 이후 <버전 2.0> <B9> <베토벤 백  
 신> 등 이색적인 공연을 이어가며 누군가의 말처럼 관객들을 훌쩍 뒤집어놓았다. 표면적으로는 톡톡 튀는 포스  
 터의 디자인부터 세세하게는 공연 팸플릿에 학력 등을 생략하고 곡에 대한 해석을 써넣는 것까지. 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공연은 면접 시험이 아니니까 공연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마땅하다.

이들의 발걸음이 튀었던 이유는 또 있다. 처음부터 이에 연주만하며 살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일명 '전업' 현  
 악 4중주단의 탄생이다. 사실 클래식계의 속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방향 설정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이  
 해할 게다. 클래식 음악시장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연주만으로 살기엔 수입이 영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교수와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연주를 양념 삼아야 살림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다. 콰르텟 엑스는 안  
 정적인 직업을 기반으로 두지 않는다. 매일같이 만나서 기획하고 연습하면서 공연에 집중한다. 오로지 연주로  
 승부를 보겠다는 심산이다.

일탈과 전업을 지향한 이유는 관객과의 소통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풀겠다는 생각에서다. 이들이 말하는 소통  
 은 과연 어떠한 방식일까. 구체적인 접근방식에 대해 입을 뗀 사람은 콰르텟 엑스의 리더, 폰테일이 탐나는 조  
 윤범 바이올리니스트다.

“흔히 클래식의 대중화라고 하면 귀에 익숙한 레퍼토리를 연주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화는  
 기존의 것과 색깔이 다릅니다. 귀에 익숙한 곡을 위주로 편성하기보다 시대적으로 중요한 곡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명곡을 선곡해서 쉬운 해설과 함께 들려주죠. 전문적인 음악가의 숨겨진 곡을 찾아내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전달해 주는 겁니다. 원본을 가장 원본답게 즐기도록 안내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클  
 래식의 대중화입니다.”

음악도 사람이 악기의 힘을 빌려 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던가. 시대적인 이야기가 바탕이 되어 작곡가의 환희와  
 절망이 담긴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이야기가 빠진 음악이란 후세 사람들이 즐기기에 아무래도 무미건조하거나  
 지루하기 쉽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마술피리와 연결시켜 이야기를 이끌어  
 냅니다. 가령 마술피리에도 크레용팝의 '빠빠빠'와 비슷하게 시작하는 음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본 이야  
 기를 시작합니다. 시선을 상대방에게 두고 흥미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 이야기로 풀어가는 식이죠.”

이들의 공연에는 대개 시대별로 들려주고 싶은 곡들을 적절한 길이로 편집한 명곡 리스트가 빠지지 않는다. 그  
 것을 순서대로 연주하면서 중간에 적합한 해석을 보낸다. 음악과 이야기가 교차하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시대  
 별 음악여행에 빠져든다. 알던 음악도 다시 보게 되고 고루하던 클래식이 대중가요처럼 친근해진다. 곡에 대한  
 해석이 음악을 풍성하게 만들어 결국 클래식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음악이 된다.

그런데 왜 굳이 현악 4중주로 대중화를 외치는 것일까. 콰르텟 엑스는 리더이자 제1바이올리니스트 조윤범을 비  
 롯해 제2바이올리니스트 박소연, 비올리스트 김희준, 첼리스트 임이랑으로 이뤄져 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







지 대중에게 현악 4중주는 ‘그냥’ 클래식 공연보다 더 지루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멋진 살롱에서 말쑥한 정장 차림의 관객들에게나 들려줄 법한 소수정예 음악의 느낌에 가깝지 않은가.

“최소한의 악기로 음악의 정수를 전할 수 있으니까요. 악기 네 대만 있으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모든 음악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 오케스트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연주자만 뽑아놓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작곡가가 부리고 싶은 기교나 웅장한 효과를 다 빼고 음악적 뼈대를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이죠. 그림으로 치자면 데생 작품과 비슷합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는 비올족 악기라고 하는데, 바닥과 의자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연주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각각이 연주하는 현악기의 소리는 비슷하나 높낮이가 다르다. 연주자 네 명이 내는 소리가 제대로 어우러지면 마치 한 사람이 음악을 풍성하게 연주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김이랑 첼리스트와 박소연 바이올리니스트도 현악 4중주단의 의미에 대해 하나되는 순간을 꼽았다.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동시에 다른 연주자의 음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혹은 첼로 소리를 듣고 맞춰야 하나의 멋진 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서로의 울림이 딱 맞아서 아름다운 하나의 소리를 낼 때, 서로를 받쳐주고 보강하면서 소통한다는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죠.”

네 명의 연주자가 하나가 되는 순간 풍성한 울림이 만들어지면, 연주자들은 이 순간을 잊을 수 없다. 혼자 연주해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짜릿함이다. 팀원들은 이것을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일종의 전우애와 비슷할 거라고 말했다. 속내를 살피면 이들이 그저 음악만 맞추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음을 듣고 맞추면서 연주를 하는 과정은 어쩌면 삶을 맞추는 작업과 비슷하다. 곡에 따라 느낌이 있듯 사람도 삶의 색깔이 있는 법,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서로 다른 듯 비슷하다. 어쩌나 호흡이 잘 맞는지 촬영하면서도 이야깃거리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확장되어 마지막에는 “조만간 미국에서 레 미제라블을 봐야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개 공유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연스럽게 수다를 즐기고 침묵이 감동하게 마련인데 이 팀은 소년과 소녀가 뭉친 듯 촬영 틈새마다 웃음소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난다. 역시나 음악 이전에 사람이며, 결국 삶의 소통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기가 같이 연주를 하는 동안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낳았다. 공연과 연습, 그리고 이동시간까지 더하면 매일같이 6시간 이상 함께하는 덕분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삶과 음악적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게 됐다. 결혼을 하면서 더욱 안정적이고 풍성한 음악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증언도, 그래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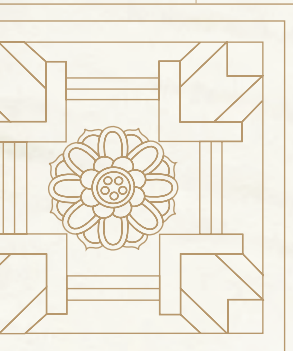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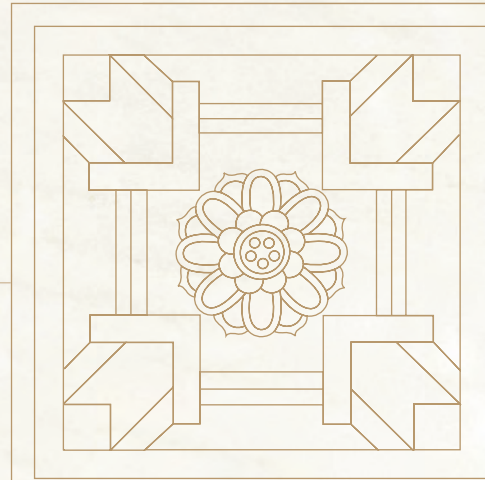
문득 궁금해졌다. 이들의 현악 4중주는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돌아온 대답은 70 혹은 80세까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현악 4중주단으로 활동하겠다는 얘기다. 생각해 보면 처음 조윤범 바이올리니스트가 팀을 결성한 것도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비롯되었다. 음악 잡지를 넘기다 외국 할아버지들이 현악 4중주를 연주하는 모습에 반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팀원을 모으지 않았던가.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현악 4중주단은 젊은 시절부터 뭉쳐서 연주를 시작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공연을 하는 모습이에요. 연주 기교는 떨어질지 몰라도 더 숙성된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젊은 시절 공연장을 찾았던 관객들이 백발이 되어 객석을 메운다면 가장 행복하겠죠.”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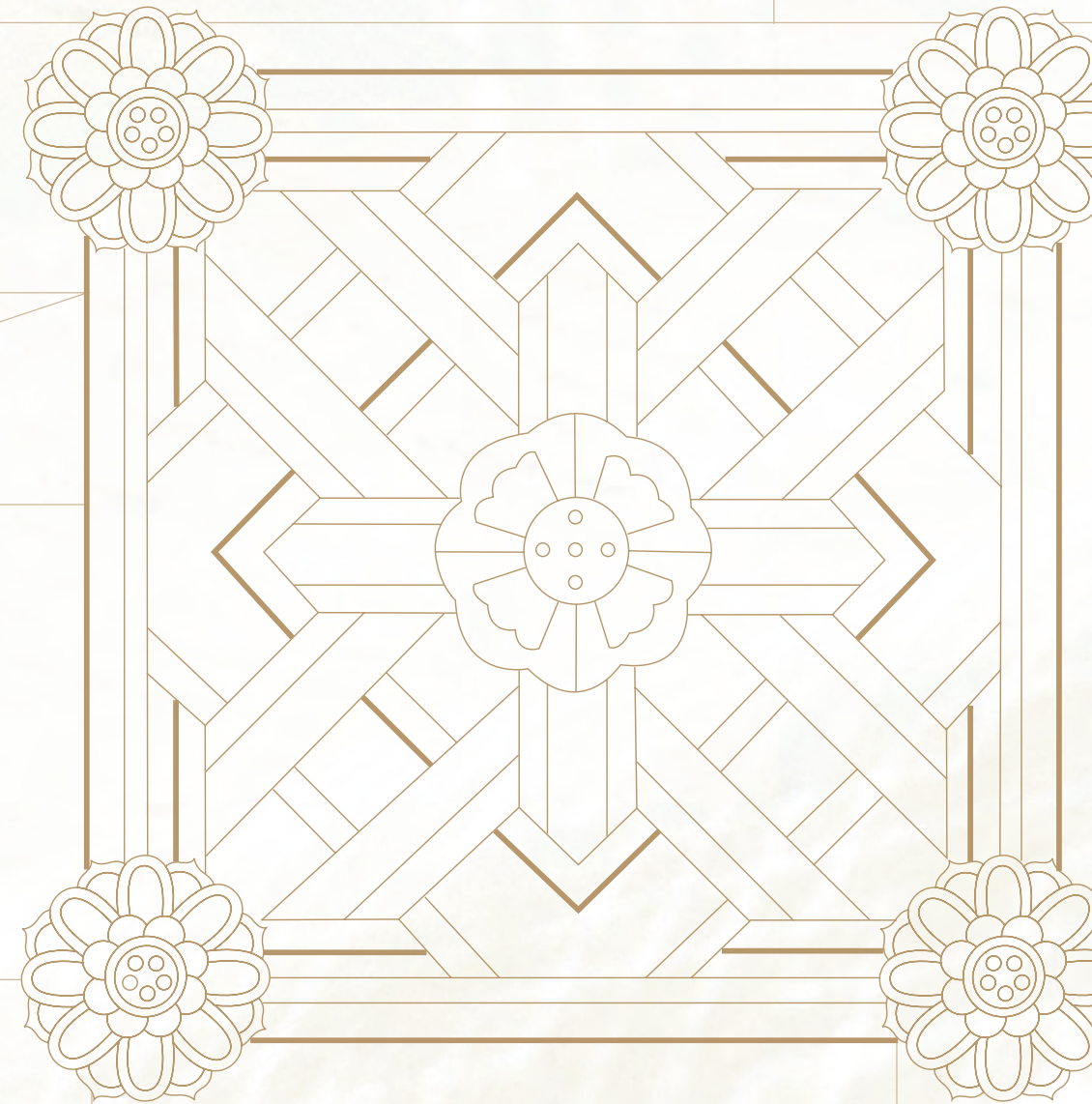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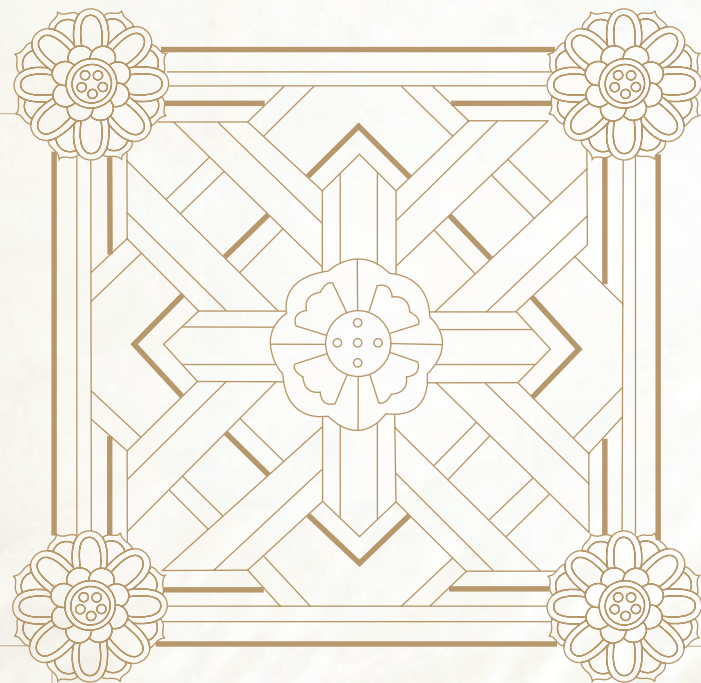
누군가 이들에게 솔리스트를 제안한다면, 다른 팀원을 대표해 조윤범 바이올리니스트가 영화 <마지막 4중주>의 대사를 빌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약간의 주춤거림도 없이 손사래를 치면서, “관심 없어요. 바로 여기에 음악적 정수가 있으니까요”라고. S

에디터 박지현(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헤어&메이크업 메이엔(02-3443-9926)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지고트(02-3447-7701), 봄빅스엠무어(02-3442-3012), 할리삼·케이트앤켈리(02-508-6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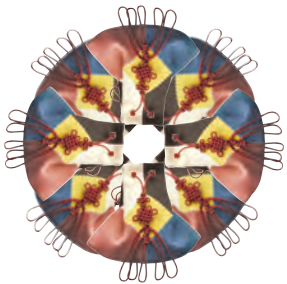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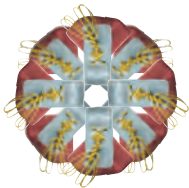


24절기를 가진 우리 풍속문화에는 춘하추동에 걸쳐 각기  
 개성이 뚜렷한 의례와 놀이가 있다. 계절이 바뀔때 따라 꼭  
 해야 할 노동을 놀이로 발전시켜온 풍속문화에는 농사의  
 번영을 기원하는 염원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통(通)하는 축제가 되었다. 해마다 그 출발점이 있으니,  
 바로 한 해를 여는 정월 의식이다.





계절제가 열리다



# 풍속에 깃든 염원, 설과 대보름

풍속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걸쳐 생겨나고 다듬어지고 계승되어온 백성들의 삶의 흔적이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는 세시풍속에는 한민족의 생활사가 그 어떤 사료나 유물보다도 또렷하게 응축되어 있다.

춘하추동 통틀어 수백 가지를 헤아리는 우리네 세시풍속의 뿌리는 무엇일까? 농경민족의 풍속이니 농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건 당연 하지만 그계 전부는 아니다. 풍년을 향한 기원 못지않게 중요했던 또 하나의 요소는 다름 아닌 공동체의 번영이다. 세상 모든 상서로움이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고루 미치기를 염원하는 것! 이는 한 해의 시작인 정월 풍속에도 예외가 아니다.

### 설날, 덕담과 청참

원단(元旦), 신년의 들머리는 상징들로 가득하다. 설날 아침에 먹는 떡국부터가 그렇다. 울긋불긋 화려한 떡들을 다 제치고 가래떡이 첫 음식이 된 건 정갈하게 맞아야 할 새 아침과 가장 어울리는 빛깔이 흰 색이기 때문. 길쭉하게 뽑아낸 형상은 무병장수를, 납작하게 찢어낸 모양은 엽전(재물)을 상징한다.

웃어른들께 드리는 세배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설날 풍속은 덕담이다. <동국세시기> 정월 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연소(年少)한 벗을 만나면 올해엔 과거에 꼭 합격하리라거나 아들을 얻으라거나 돈을 많이 벌라는 등의 말을 한다. 이를 덕담(德談)이라고 한다. 서로 축하하는 말이다.’

‘축하’는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다. 바로 여기에 덕담의 묘미가 있다. 가령 총각에게 “올해엔 결혼해야지?”가 아니라 “금년에 혼례를 치렀지? 축하하네”라고 해야 하고, 벼슬아치에게 “올해엔 꼭 승진하시오” 대신 “금년에 승진한 걸 축하하네”라고 해야 올바른 덕담이 된다.

이런 어법은 옛사람들의 언령사상(言靈思想)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말 속에는 신비한 힘이 담겨 있어 간절히 원가를 말하면 결국엔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 단정적 과거형으로 미래를 얘기하면 하늘도 외면할 수 없으리라는 강한 믿음이 덕담이라는 독특한 풍습을 낳았다는 얘기다.

내가 아닌 타인을 복(福)의 주인공으로 삼는 설날의 언어주술! 언령사상의 흔적은 동서양 곳곳에 남아 있지만 이처럼 단 하루만 효력을 갖는 ‘이타적 주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새해 복 많이...”라는 천편일률적 인사치레 속에 파묻히기엔 너무나 가까운 인류학적·언어학적 유산이 바로 한민족의 덕담이다.

덕담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점복관념(占卜觀念)’에 닿는다. 세상 만물에 모든 길흉의 예조가 있다고 믿었던 옛사람들은 그걸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점복술을 만들어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징조를 듣는다’는 뜻의 ‘청참(聽讖)’이다.

‘꼭두새벽에 거리로 나가 어떤 방향에서 들려오든 관계할 것 없이 처음 들려오는 소리로 1년간의 길흉을 점친다. 이를 청참(聽讖)이라 한다.’(<동국세시기> 정월 편)

가령 송아지가 울면 그 해엔 풍년이 들고, 까마귀가 울면 역병이 돌며, 개가 짖으면 그 집이나 마을에 도둑이 많다고 믿는 식이다. 흥미로운 건, 수동적으로 소리를 듣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상서로운 소리를 능동적으로 불러들였다는 점이다. 집이나 마을 입구에 떠나없이 심었던 미루나무가 대표적인 사례다. 길조(吉鳥) 중 으뜸이라는 까치가 가장 집짓기 좋아하는 나무가 바로 미루나무인 까닭이다. 신년의 여명과 함께 들려오는 까치가 우는 소리아말로 더없는 길조(吉兆)였을 터이니,

미루나무 심어놓고 원단 첫새벽을 기다리던 풍속엔 옛사람들의 공동체 의식 또한 담겨 있다. 벽오동 심은 뜻이 태평성대에 대한 희구였다면, 미루나무 심은 뜻은 마을의 안녕을 위한 대계(大計)였던 셈이다. 이러한 청참의 능동성은 ‘듣기’를 뛰어넘어 누군가에게 직접 좋은 애

만물에 모두 길흉의 예조가 있다고 믿었던 옛사람들은 신년이면 다양한 점복술을 만들어내고, 길을 부르고 흉을 물리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다. 사진은 무속적인 그림을 새긴 일종의 부적 판. 판의 한쪽 면에는 표범과 표범의 등에 탄 수리, 제비 등이 조각되어 있고, 다른 한 면에는 표범과 표범의 등에 탄 수리, 국화꽃, 그리고 낙관이 새겨져 있다. 재질은 나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년의 대표적인 풍속들은 대부분 부정을 주의하여, 1년치 액운을 물리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삼재에 든 십이지의 가족을 위해 정초에는 삼재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 사진의 목판은 “삼재소멸부제살천형성(三災消滅符除殺天刑星)”이라는 글귀를 새겨 삼재를 막기 위한 부적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재질은 나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기를 들려주는 덕담으로 이어졌으니, 이토록 멋들어진 신년 풍속을 세상 어디에서 또 찾아볼 수 있을까.

### 대보름, 공동체의 축제

음력 정월은 양력 2~3월 사이에 끼어 있다. 설은 새해의 시작인 동시에 새봄의 출발점으로서, 겨울과 봄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세시풍속의 절반이 정월에 몰려 있는 것도 그래서인데, 그중에서 또 절반 이상이 대보름에 집중되어 있다. 원래 농경사회에서 달은 풍요의 상징인 바, 이날의 중요성은 ‘옴’을 뜻하는 글자를 두 개나 겹쳐놓은 ‘상원(上元)’이라는 명칭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대보름이 되면 농촌에서는 농악대가 온 마을을 돌며 ‘지신밟기’를 하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줄다리기’를 했다. 어촌에서는 ‘풍어제’를 지내며 바닷길의 안전을 빌었다. 밤에는 둥근 달에 소원을 빌며 ‘달집 태우기’로 액막이를 했는데, 불이 타는 모양을 보며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쥐불놀이’엔 액운을 막는다는 의미 외에 병충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지혜도 담겨 있었다. 또 아래의 글처럼 한 해의 액을 깡그리 싣고 먼 하늘로 날아가는 ‘액막이 연 날리기’도 했다. ‘아이들이 ‘집안 식구 아무개의 액을 없애다(家口某生身厄消滅)’라는 글자를 연 뒤에 써서 띄우다가 해질 무렵에 그 연의 줄을 끊어버린다.’(《동국세시기》 정월 편)

대보름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오곡밥, 부럼, 귀밝이술, 복쌈 같은 시절 음식이다. 풍년과 건강과 복을 기원하던 이 음식들엔 단지 개인적 소망만 담겼던 게 아니다. ‘오곡반백가반(五穀飯百家飯)’이라 하여, 오곡밥은 이웃들과 나눠먹을 때 비로소 효험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만석꾼이든 거렁뱅이든 한술밥을 먹는 날! 엄동(嚴冬)을 넘기는 따뜻한 나눔의 날이 바로 대보름이다.

이윽고 휘영청 달이 뜨면 팔도의 크고 작은 교각에서 ‘답교(踏橋; 다리밟기)’가 시작된다. 이는 여인네들이 달빛을 흠뻑 쬐며 다산을 기원

했던 데서 비롯된 오랜 풍습이다. 땅 농사든 자식 농사든, 모든 농사의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하는 음기(陰氣)의 결정체가 바로 대보름의 만월이었으니.

‘온 장안 남녀들이 저녁 종소리를 들으러 종각으로 몰려든다. 종소리를 다 들은 다음 흩어져 여러 곳의 다리로 가서 산책하는데 밤을 새워 행렬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를 답교라 한다. (...) 답교는 주로 광통교와 수표교에서 가장 성했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은 통소를 불고 북을 치며 야단법석이었다.’(《동국세시기》 정월 편)

대보름 전날 밤에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솟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정월 풍속들 중 하나다. 나무나 돌로 새 모양을 만들어 긴 장대 위에 올리는데, 솟대 위의 새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오리였다. 농경 사회에서 오리는 하늘과 땅, 물을 오가며 삼재(三災: 물, 불, 바람)를 예방하는 새였고,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널리 숭배되었다. 그런 영물을 새긴 솟대를 각자의 집 앞에 세우지 않고 마을 어귀에 세운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듯 웅숭깊은 풍속이 있는가 하면 한민족 특유의 해학이 깃든 풍속도 있다. 설날 아침에 춤춘 체를 벽에 걸어두는 것만 해도 그렇다. 밤에 신발을 훔치러 오는 야광(夜光)이라는 귀신이 체의 구멍을 세느라 헛갈려서 신발 훔치는 걸 깜박한다는 것이다. 대보름날 친구들끼리 상대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더위를 팔기 위해 눈치작전을 펼치는 ‘매서(賣暑, 더위 팔기)’는 요즘에도 종종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풍속이다.

《율력서(律曆書)》에 따르면 정월은 사람과 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화합하고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기원하며 점을 쳐보는 달이다. 풍년과 다산을 향한 희구, 그리고 그것을 내담 없이 함께 누리하고자 했던 공동체 의식. 정월 풍속들 하나하나에 깊이 배어 있는 그 간절함이야말로 한민족의 삶에 깃든 풍속의 뿌리임이 분명하다.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사진 이준근





## 희망을 새로이 여미다

대문을 활짝 여는 것으로 정월 초하루의 아침을 시작했던 정월 풍속을 다시금 들여다본다. 복된 삶을 향한 소박한 기원 그리고 희망의 끈을 다시 여미었던 옛사람들의 마음이 풍속에 담겼다.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다락)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이영 촬영 장소 남양주종합촬영소(031-579-0605) 도움 주신 곳 경일한지(02-735-8489), 근대화상회(02-3676-2231), 우일요(02-763-2562),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종이나무갤러리(02-766-3397), 한국민속연보존회(02-701-9408), 한복린(02-517-6830)



### 무탈의 기원

새해를 송축하고 액운을 물리기 위해 대문에 걸었던 그림이 세화(歲畫)다. 주로 닭과 호랑이 등 벽사력을 지닌 동물을 그렸는데, 새해를 맞아 임금이 종친과 신하에게 하사할 정도로 널리 퍼진 풍속이다. 또 사발점은 사발에 여러 곡식을 담아 지붕에 올려 두었다가 남은 곡식을 보고 한 해의 풍년을 짐치던 정월 대보름의 풍속이다. 매운 바람 속에서도 세화를 걸고, 사발에 남은 곡식을 확인하던 옛사람의 마음, 한 해 무탈을 기원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 가득찬희망

아이들은 밖에 나가 희망을 띄웠고, 선비는 방 안에 희망을 두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아이들은 겨울바람을 벗 삼아 밖에 나가 연을 띄웠고, 선비들은 백자 달항아리를 방에 두고 보름달인 양 품었다. 새해 하늘에 띄우는 연도, 정월도, 보름달도 가득 찬 희망이다.

방상씨연과 집시연은 한국민속연보존회, 툄토시와 남자아이 신은 한복린, 백자 항아리는 우일요, 한지 옷칠 경상은 종이나무갤러리, 붓과 벼루는 경일한지에서 만날 수 있다.







### 좋은 소식만 전해주길

정월대보름 아침, 식전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차가운 청주 한 잔씩을 나눠 마시며 “귀 밝아라, 눈 밝아라” 하며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름마저 고운 귀밝이술이다. 1년 내내 좋은 소식만 듣고 보게 해달라는 염원이 담긴 술이다. 마당에는 연 날리기가 한창이다. 송액영복(送厄迎福)이라 금지막하게 쓴 연을 띄워 우리 가족에게 복된 소식만 찾아오기를 기원했다.

백자 술병과 술잔, 접시는 모두 정소영의 식기장. 나성숙 작가의 삼베 옷칠 소반은 근대화상회, 송액영복 연은 한국민속연보존회에서 만날 수 있다.





#### 매운 겨울 뚫고 올 봄

2월 4일, 겨울의 매운 기세가 채 가시지 않은 때이지만 절기로 치면 입춘(立春)이다. 우리 선조들이 다가올 봄을 송축하는 방법이 참 곱다. 입춘첩(立春帖)이라, 봄을 기다리는 글귀를 적어 문과 기둥, 방 안에 붙여두고 긴 겨울을 뚫고 봄의 생명이 우리 집에 다가옴을 엄숙히 기다렸다. 봄꽃 닮은 색동저고리 입고 나서고 싶은 기다림, 입춘첩에 모두 담겼다.

여성용 색동저고리, 남자아이 색동저고리와 버선 모두 한복린.



## 풍속, 축제가 되다

설과 대보름으로 시작되는 세시풍속은 절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진다. 한 계절이 가면 또 한 계절이 오고, 그렇게 배웅과 마중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간다. 시절에 맞춰 치러지는 이런 저런 풍속들은 의례인 동시에 일상이었고, 사사로운 잔치인 동시에 공동체의 축제였다.

입춘이 되면 너나없이 집안 곳곳에 입춘대길(立春大吉) 혹은 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라 적힌 종이를 붙인다. 발 뺨으면 발목이 문 밖으로 나가고, 일어서면 모가지가 지붕 위로 솟는 흥부네 집 허름한 기둥에도 어김없이 붙어 있었다는 입춘방(立春榜)이다. 이렇게 집안의 복을 기원하는 동시에 한편으론 남모르게 선행도 베푼다. 한밤중에 냇물에 징검다리를 놓고, 다리 밑 동냥 움막에 슬쩍 밥을 갖다놓기도 한다. 입춘 공덕을 쌓아야만 한 해의 액을 면한다는 믿음이 낳은 한민족 특유의 따뜻한 풍습이다.

양(陽)을 뜻하는 홀수 중에서도 한가운데인 5가 겹치는 단오(음력 5.5)는 1년 중 가장 상서로운 날인 동시에 여름의 문턱이다. 이날 남정네들은 마을 북판에서 시끌벅적 씨름판을 벌이고, 해거름엔 마을끼리 편을 갈라 석전(石戰, 돌팔매 놀이)을 벌인다. 바깥 출입을 삼가던 귀수들도 이날만은 치마폭을 휘날리며 햇볕 아래서 그네뛰기를 즐겼다. 여름의 들머리에서 더위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한, 놀이인 동시에 운동이었던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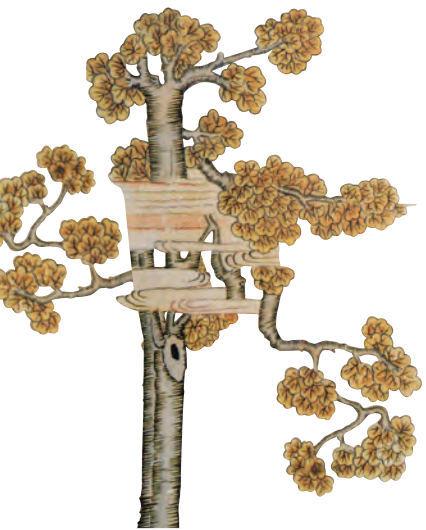
여름 한복판인 유두날(음 6.15)엔 물맛이가 열린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액을 떨쳐내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 뒤 '유두음(乳頭飲, 유두날 마시는 술)'을 들이키며 하루를 맘껏 즐겼다. 신라 때부터 이어진 이 풍습으로 인해 팔도의 강변과 계곡이 떠들썩했는데, 이는 더위를 쫓는 의식인 동시에 심신을 깨끗이 하는 일종의 정화의식이었다.

삼복이 지나가고 처서(음력 7월)가 되면 논두렁의 풀을 깔고 조상묘를 찾아 벌초하며 가을을 맞는다. 달포쯤 지나면 이삭고 한가위. 햇곡식 풍성한 들판 위로 보름달이 떠오르니 그 정취가 오죽했을까. 한가위 축제의 대명사인 강강술래 노랫말 속엔 그 밤의 흥취가 오롯이 담겨 있다. '해는 지고 달 떠오른다/하늘에다 베틀 놓고/구름 잡아 잉에 걸고/달을 잡아 북 만들고/별을 잡아 무늬 놓고/째각째각 잘도 짠다.' 달빛 흩뿌려지던 들녘에 흐르는 이 낭만적 노래 속엔 우주보다도 넓은 시심(詩心)이 그득하다.

달(月)이 그렇듯 계절도 차면 기우는 법. 입동 이후 조금씩 깊어지던 겨울은 동짓날에 이르러 절정을 맞는다. 동지는 말 그대로 겨울이 극에 이르는 날. 길기만 하던 밤은 이날을 고비로 한 뼘씩 짧아지고, 겨우내 움츠렸던 세상 만물은 길어지는 낮에 힘입어 새롭게 소생하기 시작한다. 옛사람들은 동짓날 붉은 팔죽을 쑤어 음귀를 쫓으며 조만간 다가올 설과 그 너머의 새봄을 기다렸다.

그리고 정월, 계절은 다시 돌아오고 풍속 또한 다시 되풀이된다.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우주의 이치에 순응하며 공동체를 평온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세시풍속, 혹은 계절제. 그게 없었다면 이 땅의 사계절은 더없이 지루하고 고단했을 것이다. 농경민족의 지혜로 빚어져 세월 속에서 영글어온 그 다채로운 축제들이 없었다면, S

에디터 김희성 글 박경수



尊

雪花秀

## 맨 얼굴로도 하루 종일 윤이 나는 피부- 피니셔가 만드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설화수 미안피니셔

아침 저녁으로 정성 들여 관리하는 스킨케어, 그 효과는 왜 금방 사라질까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여 전체적인 효능을 극대화하는 미안피니셔- 녹차와 인삼의 조화로 완성된 녹삼호™가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앞서 바른 성분들을 단단히 지켜주고 스킨케어 효과를 강력하게 끌어올려 줍니다 맨 얼굴로도 하루 종일 윤기 있게 빛나는 여자의 피부를 위해 이제 윤조에센스로 시작하고, 미안피니셔로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담, 설화수 미안피니셔

# Sulwhasoo





# 희다, 상서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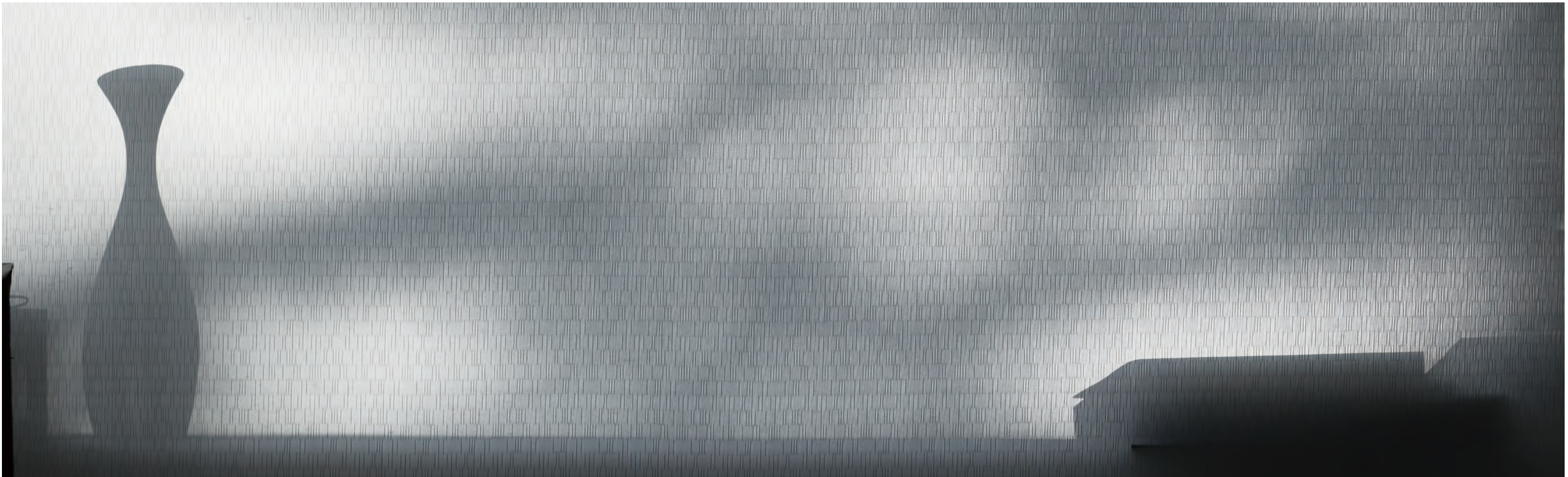
우리 말 '희다'는 태양을 상징하는 '희'에서 왔다. 과학적으로도 태양이 붉은빛이 아니라 흰빛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지만, 우리 선조들에게 그 전부터 백색은 태양의 빛이었던 셈. 백색은 태양을 상징하는 색으로 상서로운 징조를 불러오는 복된 색이었는데, 고맙게도 겨울은 이 희고 고운 백색이 넘쳐난다. 희고 고운 상서로운 기운 받으라.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한구(다큐멘터리 사진가) 참고도서 (한국의 전통색(문은배, 안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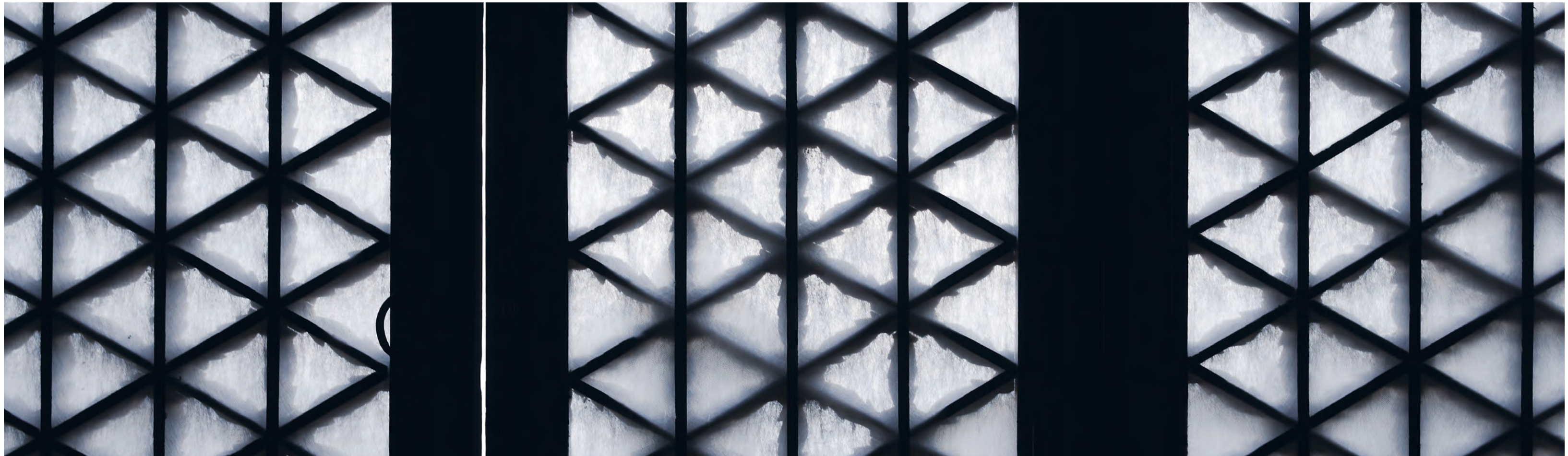
## 백색 (白色)

오방정색의 하나,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색이 백색이다. 독야청청(獨也靑靑)을 의미하는 색으로 물욕을 억제하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들이 지향한 색이었으며, 이런 연유로 선비들은 백자를 가까이에 두고 정신을 가다듬고는 했다. 벽에 무심히 서린 어린 백자의 그림자를 보니, 그 그림자마저도 희고 고운 달빛을 닮았구나.

It is one of the five traditional Korean colors, and it also represents the Korean people. It means integrity and a portrayal of the noble scholars' pursuit of the Joseon Dynasty in order to restrain material greed. For this reason, the scholars kept white porcelain items close to them in order to restrain themselves. Even the white porcelain's shadow on the wall resembles a white moonlight.







설백색(雪白色)

첫눈을 반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속담에 '눈이 순하게 오면 풍년이 든다'고 했고, '첫눈에 넘어지면 재수가 좋다'고도 했다. 옛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온전한 백색으로 만들어주는 눈은 반가운 존재였나 보다. 눈부시게 하얗다는 말,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힘든 그 하얀 빛이 바로 평평 내려 쌓인 눈을 닮은 '설백색(雪白色)'이다. 창틀에 쌓인 눈을 보고 밖으로 나서니, 이름 모를 자연물이 사람보다 먼저 길을 만들었다.

How could anyone not welcome the first snow of the year? The proverbs say that 'moderate snow is a sign of good harvest' and that 'falling on first snow means good luck' Even the ancestors enjoy the snow that covers the world in white. Snow White represents the sparkling and natural white light, similar to that of real snow, which is difficult to reproduce artificially. During this time of the year, while seeing the snow softly piling by the window, it is also amazing to witness a path made on the snow by an unidentified creature.





학색(矚色)

겨울 창공을 나는 학의 우아한 날갯짓, 구름과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희고 푸르다. 저 멀리 날아가는 학의 무리처럼 산봉우리 높은 곳에 쌓인 눈의 색을 학색(矚色)이라 한다. 겨울이면 동물은 동면에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기온차게 날아와 겨울을 보내는 학(鶴)은 예부터 '십장생(十長生)'으로, 영물로 대접받았다. 옛 선비들은 학이 동네 어귀에 날아들면, 그 귀한 빛이 날아갈 새라 창호문 살짝 열어 영접했을 것이다.

The elegant wings of the crane flying through the sky during winter are as white as the clouds and the snow. This gave birth to the color, White Crane. During winter, most of the animals either go into hibernation or die from the freezing cold. However, the cranes take to the skies in order to survive the winter. They have been admired as one of 'the ten traditional symbols of longevity'. The noble scholars of the past have widely opened the doors to welcome the cranes when they land at the entrance of the village.





나무는 얼음 밧에서도 강인한 봉우리를 끝끝내 쥐고 있다. 나무에게는 정점으로 향하는 인고(忍苦)의 상징이 바로 꽃 봉우리 아닐까. 흰 비단을 봉우리 속에 가득 뭉치고 있다가 어느 결에 툭 터트리면 목련나무처럼, 세상의 무수한 들꽃나무처럼 은은하고 고운 빛깔이 호색을 닮았다. '흰 비단'을 가리켜 호색이라 하는데, 호색은 아무런 장식이나 꾸밈이 없어 수를 놓아도 그림을 그려도 모두 포용해 주니, 과연 자연의 빛이다.

A tree does not let go of its tenacious bud even in the field of ice. I believe the tree's symbol of perseverance that leans towards apex is its bud. As a magnolia tree that blooms its white silk by lumping it within its bud, a delicate and fine color of innumerable wild flowers and trees resemble Hosaek. People say 'white silk' is hosaek. I could not agree more as hosaek, in its austere state, embraces any drawing and needlework so it is indeed the color of the nature.







박색(淸色)

혹한의 겨울을 깨는 기운찬 소리가 깊은 산속의 개울에 있다. 고여 있는 물은 그 깊이가 제아무리 깊어도 표면은 쉽게 어는 법이다. 빠르게 흐르는 물은 깊지 않아도 길을 트고, 굽이친다. 박색(淸色)이 여기에 있다. 물빛이 매우 희고 맑을 때를 이르는 '박(淸)'자를 살펴보자. '흰 백(白)'자가 무려 3개 합쳐져 있다. 맑은 사람의 기운을 맑은 물에 빗대는 것이 어찌 우연이라 하겠는가.

The vigorous sound, which is heard as winter season ends, comes from the streams deep in the mountains. It does not matter how deep the location of the stagnant water is because the surface still freezes easily. Fast-flowing water makes its way down, even though the space is shallow. This is where you will find the color of Clear White. Look closely at the Chinese character for this color, which represents the white and lucid color of the water. It is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Chinese characters for the color 'white.'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the purity of the human spirit is compared to the clarity of water.





# 눈꽃 나무가 되다

신년 이른 아침부터 함박눈이 산야를 가득 채우니, 계절을 잊은 것인가. 나무에 꽃이 달리었네. 하얀 눈꽃이 달리었네.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은숙



## 눈을 보며 -이색(李穡)

松山蒼翠暮雲黃(송산창취모운황)  
飛雪初來已夕陽(비설초래이석양)  
入夜不知晴了未(입야부지청료미)  
曉來銀海冷搖光(효래은해랭요광)

송악산 푸름에 저녁 구름 물들더니,  
눈발 흩날리자 이미 해는 저물었네.  
밤 들면 혹시나 이 눈이 그치려나.  
새벽되면 은빛 바다에 눈빛이 차갑겠지.

마치 실크 유익을 발라 마무리한 도자기처럼 매끄럽고 투명한 자기 피부로 연출해 주는 유액 타입의 메이크업, 설화수 CC유액. 부드럽게 발리고 균일하게 밀착되어 잡티를 깨끗하게 커버해 준다.





산속 눈 내리는 밤에  
-이제현(李齊賢)

紙被生寒佛燈暗(지피생한불등암)  
沙彌一夜不鳴鐘(사미일야불명종)  
應嘆宿客開門早(응탄숙객개문조)  
要看庵前雪壓松(요관암전설압송)

홀이불에 한기가 들고 법당의 등불도  
어두운데,  
꼬마 승려의 날이 밝도록 종도  
울리지 않는구나.  
아마도 나그네가 문을 일찍 연다고  
응당 화를 내겠지만,  
암자 앞 눈 쌓인 소나무는 꼭 보리라.

세안 후 가장 먼저 피부에 바르는 윤조에센스는  
메마르기 쉬운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키고  
윤택하게 하여 다음 단계 제품들의 흡수를  
돕고, 효능을 높이는 부스팅 기능을 한다.





# 빛의 예술, 라리크(Lalique)

프랑스 북부 보주(Vosges) 지방이 자랑할 만한 라리크 박물관, 세계 각국의 많은 이들이 크리스털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이 박물관은 60년 전부터 라리크 크리스털 제조사가 자리 잡고 있는 빙겐 쉬르 모데에 있다. 이곳에 가면 정교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1



2



3

그전까지 라리크 박물관(musée Lalique)은 2006년에 부유한 컬렉터가 일본 하코네에 세운 박물관 하나밖에 없었다. 빙겐 쉬르 모데(Wingen-sur-Moder)에 있는 라리크 박물관은 1990년대에 건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뮌체 드 프랑스(Musée de France : 프랑스 박물관) 라벨이 붙었으며, 르네 라리크(René Lalique)가 1921년에 세운 크리스털 제조공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이 박물관은 아장스 빌모트(Agence Wilmotte) 건축회사가 호흐베르크(Hochberg)의 낡은 유리 공장을 개조한 곳으로, 옛 건물들과 현대 건축이 결합되었다. 900평방미터 공간에 진열된 650점의 소장품은 구매, 기부, 대여의 대상이 되었다. 르네 라리크의 작품들이 공간의 5분의 4를 차지하고, 그의 자녀와 손녀인 마크, 수잔, 마리 클로드의 작품들이 소수 진열되어 있다.

1 르네 라리크는 항수병에서 예술 작품으로 작품 방향을 바꾸면서 테이블용 유리 제품도 디자인했다. 2 라리크 박물관의 마당. 나무와 나비 등 다양한 모양의 공간에 풀을 심은 것이 독특하다. 3 라리크 박물관의 외관. 박물관의 다양한 건물들과 연결되어 있다.





1



2

### 독특하고 정교한 작품들

보석 디자이너로 데뷔한 르네 라리크(1860-1945)는 에밀 갈레(Emile Galle)에게 “근대 보석의 발명가”로 격찬을 받았다. 그는 아르 누보와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뼈꾸기, 민들레, 박쥐, 밤나방 등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동물과 식물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삼았다. 그는 여성의 몸도 장식적 요소로 이용했다. 끝이어 그는 준보석, 상아, 뿔, 에나멜, 유리 등 덜 고급스럽게 여겨지던 재료들을 금과 보석에 결합했다. 이후 아르 누보에서 아르 데코로 그의 디자인 스타일이 바뀌면서 그의 작품에선 유리가 다른 재료들보다 많이 등장한다. 그는 유리를 모든 형태로 굴절시켰고, 15종의 특허를 받은 혁신적인 산업 제조방식으로 독특한 작품들을 시리즈로 제작했다. 그는 예술 작품과 보석 작품을 창조했고, 테이블용 유리 제품과 조명기구를 디자인했으며, 실내장식과 건축 분야에서 응용할 제품들을 발굴했다.

1 정교하게 만들어진 소형 조각상. 2 풍령이와 팔찌, 반지로 연결된 독특한 디자인의 보석 프로젝트 작품. 3 뿔나무 열매인 오디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마개 디자인이 화려한 향수병.



3





1

2



3



4



5

### 20세기의 천재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르네 라리크의 아들인 마크 라리크(Marc Lalique)는 유리에서 탈피해 더욱 빛이 나고 커팅은 훨씬 쉬운 크리스털로 이동했다. 라리크 박물관의 디렉터, 베로니크 브룸(Veronique Brumm)은 해석의 열쇠를 보다 광범위한 대중에게서 찾고자 했다. 그녀는 2004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전시된 작품들을 사회적인 의미가 포함된 맥락에서 재평가하고자 했다. 라리크 박물관이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집안 어른이 라리크 제조공장에서 유리 세공사로 일했던 인연이 있어서인지, 라리크 박물관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대단하다. 2008년부터 라리크 크리스털 제조사(Cristallerie Lalique)의 오너이자 대표인 실비오 덴즈(Silvio Denz)는 르네 라리크를 20세기 천재들 중 하나로 여긴다. 그는 자신의 향수병 컬렉션을 라리크 박물관에 대여했다. 그가 경영하는 라리크 크리스털 제조사는 라리크에서 가장 유명한 테크닉의 하나인 압축주조 테크닉으로 만든 제품들을 꾸준히 공급해왔으며, 1927년에 처음 제작된 화병을 필두로 한 압축주조 제품들은 라리크의 베스트셀러다. S

에디터 신정희 번역 주미영 글 아녜스 바앵당드리스(Agnes Waendendries) 사진 크리스토프 뒤지예(Christophe Dugied)

1 정교하게 조각된 모양이 더욱 고급스러워 보이는 물병과 물잔. 2 라리크가 디자인한 양귀비 모양의 향수병. 신비한 컬러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3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이 생동감 있게 조각된 큰 잠자리 모양의 향수병 마개. 4 북고풍의 대형 나비 장식은 펜던트용으로 제작되었다. 5 백합꽃이 새겨진 유리 판. 교회의 벽면을 장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해피월드  
HAPPY  
WORLDS



탁월한 그림꾼 마리스칼

세계적인 디자이너 하비에르 마리스칼이 아시아 최초로 그의 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어떠한 제약도 없는 듯한 자유로운 놀이 형식을 통해 디자인과 다른 예술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마리스칼의 작품들을 통해 유쾌하면서도 흥미로운 상상력의 세계를 경험해 볼 수 있다.





1 '스케치의 방'에서는 숨을 이루고 있는 듯한 방대한 양의 스케치와 드로잉을 통해 마리스칼의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다. 2 마리스칼을 유명하게 만들어주었던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스코트 '코비'. 3 마리스칼의 대표작품 중 하나인 '빌라 홀리아. 마지스(社) 장난감 집. 이탈리아 트레비소'. 4 그는 콜라주 기법을 통해 형태와 색채를 재조합해 완전히 새로운 사물로 창조해낸다.

스페인의 환경, 문화, 기질은 매우 독창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페인 여행을 권하며 스페인 사람들의 열정과 예술가적 기질을 높이 산다. 그래서 패션과 디자인 분야에서는 최고를 다투는 작가들 중에 스페인 출신이 많다. 알다시피 20세기 현대미술을 이끈 대표적인 작가들의 상당수도 스페인 태생이다. 피카소와 달리, 미로, 타피에스 그리고 건축의 가우디는 익히 알려진 이들이다. 근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벨라스케스, 고야가 손꼽힌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력, 상상력, 그리고 영감과 유머, 낙천성 등을 꼽는다. 탁월한 손 솜씨, 재능은 당연한 사항이다. 어느 측면이 스페인에서 훌륭한 예술가를 배태시키는 힘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분명히 유전적인 요소가 크다는 생각이다. 생각해 보니 문학의 세르반테스도 그런 유형의 작가다. 이처럼 뛰어난 작가들을 배출하고 있는 스페인의 문화적 저력은 놀랍기 그지없다. 아마도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받아들인 원시적인 문화가 융합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문화는 개방성에서 시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수용성과 이해심, 그리고 이를 통해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힘에서 오는 것 같다. 하여간 스페인의 시각 이미지는 가히 독창적이고 자유분방함, 유머와 해학성 등에서 탁월하다. 그러한 스페인 미술의 전통을 고스란히 껴안고 있는 전방위 디자이너 하비에르 마리스칼이다. 그의 전시가 현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다.

예술의 전당 1층 전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를 둘러본 소감은 한마디로 '행복'이었다. 그의 드로잉, 회화, 디자인, 가구와 영상, 소품 등은 모두 편하고 귀엽고 자유로우면서도 해학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더할 나위 없이 세련된 장식성으로 빛난다. 나는 특히 그가 그려놓은 무수한 그림들, 이른바 드로잉과 색채가 깃든 그림들을 보면서 놀라웠다. 방대한 양에도 놀랐고 그 작품 하나하나에서 흘러넘치는 매력적인 솜씨에도 그랬다. 마리스칼은 보이는 모든 것을 그리고 있다. 그는 닥치는 대로 그리고 모든 곳에 그린다. 그리고 모든 그림이 짙고 아름답고 보는 이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마리스칼이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계기는 아마도 그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스코트 '코비'를 만든 이로 알려지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딱딱하거나 정형적인 디자인 개념을 깨고 거의 만화 캐릭터처럼 자유롭게 그려진 그 코믹한 도상은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전시장 한곳에는 이 올림픽 마스코트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커다란 프레임 안에 가득 들어 있다. 저 깜찍한 도상 하나로 얼마나 무궁무진한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지 실감하였다. 그만큼 디자인의 힘이 무섭다는 사실도 확인시켜준다. 천진난만하면서 동시에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전적으로 즐기는 마음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도상이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토양, 즉 교육과 문화, 사회 환경과 시각 이미지를 대하는 태도와 이해가 바탕이 돼야 가능한 일이다. 뛰어난 영감과 상상력을 지닌 자유로운 예술가의 영혼을 받아주며 그 재능을 높이 사는 사회가 있기에 저런 디자이너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경우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고? 뛰어난 디자이너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클라이언트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1



2



3



4



5

아무리 좋은 것을 내놓아도, 제출해도 그것을 보고 인정해 주는 눈이 없다면 결국 디자인은 죽음이다. 우리의 경우는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우선이 아니라 주문자의 기호와 취향에 맞추어 납품하는 디자인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는 전문가들을 배려하는 문화의 부재와 더불어 시각 이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마리스칼과 같은 뛰어난 디자이너, 혹은 시각 이미지 생산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듯하다.

마리스칼은 무엇보다도 탁월한 그림꾼이다. 그의 드로잉은 탁월하고 흥미로웠다. 어린 시절 심한 난독증을 앓았다는 그는 이후 무엇이든지 그림으로 그리면서 소통하고 그리기를 유일한 놀이로 삼아왔다. 그는 자신이 눈으로 본 모든 것을 펜과 연필, 크레용 등으로 수첩이나 스케치북 위에 그려냈으며 글이 아닌 그림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사람들과 소통해왔다. 그래서 그의 스케치는 정말 잘 그린 그림이다. 보이는 모든 것을 쓱쓱 선으로 그려 나가면서 자신만의 감성으로 매만져진 형태로 고착시키는 일은 거의 미술 같은 일이다. 그림은 우선 이러한 드로잉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아무리 첨단과학 시대고 디지털과 기계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림은 여전히 누군가의 탁월한 손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마리스칼은 그 뛰어난 손으로 방대한 그림을 남겼고 엄청난 숫자의 그래픽 디자인과 가구,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회화와 조각,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형물도 제작해왔다.

예술의 전당 전시장의 전체 공간에는 수많은 그림이 걸려 있거나 부착되어 있으며 그 사이사이로 그가 디자인한 가구, 소품 그리고 영화가 설치되어 있다. 그가 만든 가구도 익살스럽고 자유롭다. 그는 콜라주 기법을 통해 형태와 색채를 재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사물로 창조해낸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마리스칼의 전시 공간에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측면보다 더 중요한 시적이고 미적인 가치를 접하게 된다. 그가 다채로운 색채로 만들어낸 수많은 작품 속에는 그가 담고자 한 것, 다시 말해 '삶의 기쁨'이라는 가치가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마리스칼의 손에서 태어난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작품들은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일반적인 전시는 사뭇 심각하고 너무 난해해서 보는 이를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마리스칼의 전시는 가벼우면서도 매혹적인 조형의 힘이 있고, 자유롭고 즐거우면서도 탁월한 예술적 가치들이 머물러 있다. 평자들은 하비에르 마리스칼에 대해 모든 제약에서 자유를 추구,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성, 다시 말해 그래픽, 일러스트, 건축, 영화 등 모든 영역에서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히 구축돼 있다고 한다. 그리고 놀이처럼 예술을 즐기며 한계 없는 상상력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다고도 한다. 특히나 기존의 모든 질서에 도전하고, 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고 결합하며, 일반적인 예술 통념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있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사실 이러한 덕목은 단지 예술가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삼 중요한 덕목일 것이다. S

에디터 신정희 글 박영택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 사진 이은숙

1 마리스칼은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예술의 모든 분야를 넘나들었다. 2 전시장에 자리 잡은 알록달록한 대형 알파벳 조형물. 3 마리스칼의 독특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의자 디자인. '듀플렉스, B.D. 바르셀로나 디자인(社) 의자, 스페인 바르셀로나. 4 마리스칼이 제작한 인기 만화시리즈의 캐릭터로 가장 사랑받은 홀리안. '홀리안, 마지스(社), 이탈리아 트레비소. 5 마리스칼만의 무한한 상상력으로 빚어낸 가구와 소품.





# 세월을 '있는' 내림이 내일을 '있게' 하다

오색실이 엮어내는 아름다운 문양들의 정교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정성과 인내의 산물이라 더욱 값지게 여겨지는 자수. 이제는 끊어질 듯 어렵게 이어지고 있는 자수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김시인 자수장과 그의 딸 고윤정 씨를 만나 그들이 잇고 있는 손 내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보았다.



전통을 잇되, 고인 물이 되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되, 전통의 정수를 버리지 않는 길을 선택한 장인의 족적을 그의 딸이 되밧는다. 험한 길이지만 누군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애.

자세히 보려면 당장 돋보기라도 들어야 할 판이다. 이런 정교함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다. 오로지 여린 손끝으로 한 치의 건너땀 없이 한 '땀'씩 인내해야 얻어지는 성실의 결정체다.

오색실이 몸을 쉬다가, 가는 길을 달리하며 이뤄내는 백태의 문양. 한국자수(刺繡)를 보고 있다면, 절로 우리네 여성의 빼어난 솜씨에 대한 예찬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그 감동의 울림이 클수록 안타까움도 깊어진다. 화려했던 한국 자수의 명맥이 색 바랜 실처럼 흐릿해지고 있어서다.

자수도 고도의 산업화 격랑에 떠내려간 수많은 것 중 하나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여염집 규수치고 수틀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이 누가 있었을까. 하지만 세월은 수틀 앞에 앉은 여인의 다소곳한 맵시를 앗아갔다.

밥상에 김치 없듯 누구나 하던 일이 이젠 장인의 영역에 갇히고 만 것이다. 더욱 복잡 터질 일은 그 장인의 맥 역시 자칫 끊길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김시인(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3호) 자수장(刺繡匠)과 그의 뒤를 잇는 딸 고운정 씨 모녀의 '손 내림'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김 자수장이 걸어온 길을 엿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가 자수의 길에 접어든 건 '가계의 환경'과 '본인의 취향'이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그의 어머니 류현이 씨는 하회마을 류성룡 선생의 형님이신 겸암 류운룡 선생의 후손이며, 외가는 목은 이씨의 후손이었다. 그야말로 명문가의 후손인 셈이다. 엄한 기풍과 규방문화의 전통을 생명처럼 떠받들던 분위기 속에서 자란 그는 문경시 산양면 송죽리 덕암마을 고재선 씨에게 출가해 김 자수장을 낳게 되었다. 유서 깊은 가문의 후손이었던 어머니 슬하에서 그가 자수를 접한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친정 하회에서 시집을 때 고리짜 가득 실을 물들여 가지고 왔던 어머니가 그의 첫 번째 스승이었던 것이다.

집안 환경이 그렇다고 고되고 더딘 장인의 길을 가야겠는가. 그러나 김 자수장은 학창시절부터 수예시간에 두각을 나타냈다. 색색의 실이 자신의 손을 거쳐 봉황이 되고, 모란이 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좋았다. 타고난 재능에 노력이 합쳐졌으니, 장인의 조건이 완성된 셈이다. 그런 그가 1966년 전통 자수계의 거장 김계순 선생을 만난 건 어쩌면 당연한 인연이자 순서였는지 모른다. 1970년 결혼 후 '송취전통자수연구실'을 개원하면서 스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독립한 그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수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하지만 김 자수장의 공로는 비단 전통의 계승이라는 항목에만 머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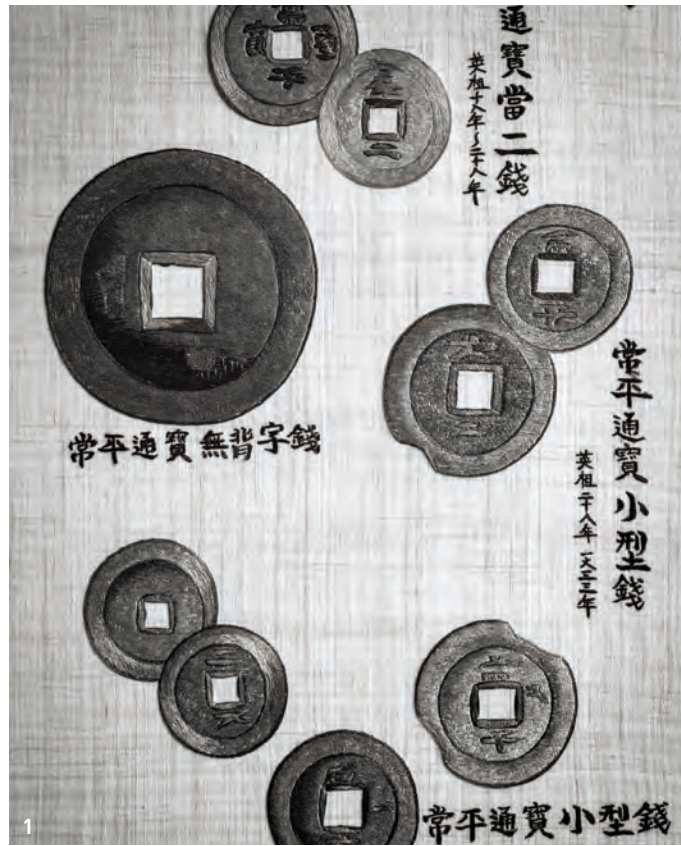
우선 그는 스승 김계순 선생으로부터 자수의 생명인 바늘과 실에 대한 정수를 전수받았으며, 스승만이 가지고 있던 기법인 침선에 자수를 접목시키는 비법을 내림받았고, 자수기에 중 가장 어렵다는 '열쇠 패' 재현의 최고 전문가가 되었다. 게다가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육골침'을 재현하여 복원하기도 했으며, 목기류에 자수를 접목시키는 등 병풍·벽걸이액자·의상 등에 국한됐던 전통자수의 틀에서 벗어나는 과감함까지 선보였다.

그런데 반세기 동안 자수에만 매달려온 그가 인색하게 굳게 한 가지 있다. 바로 작품을 팔지 않았던 것. 대신 지난 2004년 문경시 문경유교문화관 개관 시, 그렇게 모아온 작품을 기증해 많은 이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아시아와 유럽, 미주 등지에서 수차례 전시회를 열어 우리 자수문화가 왜 세계적인 문화재인가를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작가의 사후에야 비로소 전시될 수 있다는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그의 작품이 영구 소장될 만큼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



1 자수는 시간과 노고의 집적물이다. 한 땀 한 땀, 천을 관통한 바늘의 흔적이 한 떨기 꽃으로 피어났다. 2 의걸이 장롱의 전면을 자개 대신 자수가 치장하고 있다. 자수와 목기의 유쾌한 만남이다. 자수는 병풍에나 해당되는 것이란 고정관념을 깬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작품의 제작기간은 무려 5년이 넘는다. 3 딸은 어머니의 고단함과 성취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마주한 모녀의 여린 손끝에서 한국의 전통자수는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1 민화와 자수의 공통점은 그림을 통해 수복강녕을 기원했다는 점이다. 상평통보를 그림으로써 부귀를 염원하고 있는 작품. 2 자수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해 보인다. 아낙의 꽃신에도 안경 통에도 복주머니에도 손가방에도 자수는 화려함을 더하는 절대적 요소가 된다. 3 서울 청운동 집에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김시인 자수장이 딸 윤정 씨와 이마를 마주하고 앉아, 반세기 동안 갈고닦은 기법을 전수하느라 여념이 없다.

받고 있으며, 몽골 울란바토르대학을 방문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자수박물관을 설립하기도 했다.

“수틀 앞에 앉아 수를 놓다보면, 모든 잡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밤새는 졸도 몰랐죠. 한숨 자고 난 것 같은데, 50년 세월이 흘렀네요.”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실패가 닳을 정도로 손때를 묻힌 그였다. 여기까지는 여느 장인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 평생을 바친 지난 시간이 그저 아련할 뿐이죠. 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전통자수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기계가 사람의 손을 대신하더니, 그것마저 수입품이 시장을 장악해, 우리 자수가 고사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게 된 겁니다.”

자수에 대한 수요가 줄어 “살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됐다”고 말하는 김 자수장이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두 가지 일이 있다. 하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인 김정옥 사기장과 함께 들어갈 전수회관이 문경에 완공되면, 보다 많은 제자를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윤현궁을 비롯해 많은 지자체의 문화교실을 통해 자수문화 확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해서 전수회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볼 작정입니다.”

그를 기쁘게 하는 또 한 가지 일은 딸 윤정 씨가 가업을 잇겠다고 나섰다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한 몸이나 마찬가지로 있던 수틀을 보며 자란 딸이니 당연지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애당초 자발적으로 실과 바늘을 잡은 건 아닌 모양이다.

“이 길을 가겠다는 젊은 사람이 없으니 어쩔니까. 딸이라도 붙잡고 사라지는 문화를 이어달라고 매달릴밖에요.”

어머니는 ‘반 강제’였다고 웃으며 고백했다. 어쩌면 딸에게 ‘자수’는 늘 곁에 있어 익숙한 거부감 없는 존재이기도 했겠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험한 길임을 어머니의 일상을 통해 미리 알아차려 버린 대상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러니 선뜻 나서기가 벅차지 않겠는가.

윤정 씨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묻자, 그의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워낙 어머니를 닮아 말수가 적은 탓도 있지만 선불리 허언을 입에 담지 않는 신중한 성격인 모양이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묵언수행과도 같은 자수의 길을 걷기에 어쩌면 적당한 인물일지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다. 만사가 그렇겠지만 자수 역시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고된 일이다. 끝없이 시간만 투자하고 수입은 없는 비경제적 행위다. 놀라운 끈기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러니 광속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분야인 셈이다. 그렇다면 자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무얼까?

“잡으면 놓기 싫고, 일단 놓으면 쉽게 잡게 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마음을 다듬어 인격을 연마하는 데는 그만인 일이기도 합니다. 얻어지는 건 무념무상의 마음뿐이라고 할까요.”

김 자수장은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539호로 지정된 문경시 산양면 송죽리 덕암마을을 개성 고씨 가옥에서 기거하다, 겨울이면 서울 청운동 아파트에서 동안거를 반복하며 한 해를 보낸다.

모녀는 청와대 뒷산을 이마에 담고 북풍한설을 잇은 채, 수틀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다. 쪼르르 달려온 영특한 외손녀 수민(청운초등학교 1학년)이가 할머니와 엄마의 손놀림을 보며, 대물림의 싹을 틔우는 장면은 참으로 아름답다.

자수의 세계는 사양산업임이 분명하다.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더욱 보존하고 지켜내야 한다. 그 버거운 길에 모녀와 손녀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 S

글 최태원 사진 왕태균 캘리그래피 이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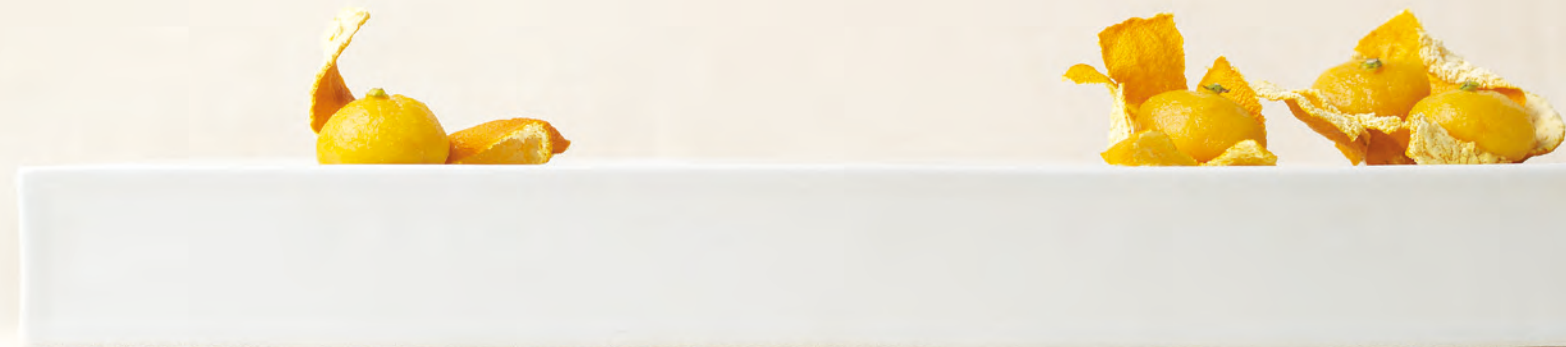
진 피떡, 모양과 향기를 살리다



## 복을 부르고, 향기를 머금고

창밖에는 눈이 소담히 쌓이고, 상에 오른 진피, 석류, 소나무는 향기를 머금었다.  
새해 처음 빛은 떡 향기에 취하니 정초의 복(福)도 그 향기 따라 깃든다.

푸드 아트 이종국 어시스턴트 최은미, 박진우 사진 이종근 에디터 김희성





석류청과 석류병, 달콤하게 겨울을 마중하라







말이떡, 솔잎의 건강을 담다

**진피떡**

겨울을 상쾌하게 만드는 단 하나의 향기를 꼽으라면 단연, 제주에서 올라온 귤향이다. <본초강목>에 ‘진피는 성질이 따뜻하며, 몸 안의 기 순환을 도와준다고 적혀 있다. 이렇듯 진피는 성질이 따뜻하여 피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겨울이 준 보배’다. 진피를 이용하여 귤 모양을 그대로 살린 진피떡을 만드니 향기가 지 오롯이 담겼다.

This is a unique fragrance, exclusively from Jeju, that refreshes the body during winter. According to <Bon-cho-kang-mok>, it was stated that the “dried tangerine peel is warm in nature and enhances the circulation of energy in the body.” It is the ‘treasure of winter’, which is great for the circulation of blood. We used dried tangerine peel to make the tangerine-shaped rice cakes.

**석류청과 석류병**

석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를 아름답게 하는 과일로 꼽힌다. 석류를 두고두고 음미하려면 석류청을 만들어 두자. 달콤한 과실을 맛보기 힘든 겨울 후식으로 그만이다. 여기에 석류즙으로 색과 향을 살린 석류병을 함께 올리면 이보다 달콤하고 향긋한 다과상이 또 있으랴.

The pomegranate is great for women around the world due to the powerful antioxidants that it contains. In order to enjoy the pomegranate fruit all year round, make a pomegranate honey. It is the perfect dessert during winter when it is difficult to find any sweet fruit. Serve it with pomegranate flowers infused with pomegranate juice for the additional sweet and fragrant flavors.

**말이떡**

사철 에너지가 가득한 소나무지만, 그 백미를 논하자면 역시 하얀 눈을 소복이 올리고도 푸름을 감추지 못하는 기백 아니던가. 겨울 소나무의 에너지를 그득 담은 솔잎을 넣어 반죽한 떡을 얇게 밀어 피를 만들고, 몸을 보할 수 있는 인삼, 대추, 잣, 석이 등을 채 썰어 돌돌 말아 신년 귀한 손님치레에 좋은 말이떡을 만들었다.

The pines are filled with energy in every season, but its true beauty lies in the emotion that it evokes during winter. The rice cake dough made with the pine needles is infused with the energy of winter pine. It is filled with healthy ginseng, dates, pine nuts, and manna lichen, and then rolled into thin wraps in order to make the rice cake rolls, which will be served to the precious guests during the New Year.







## 자음생, 인삼으로 피부를 깨우다

나이가 들수록 귀티 나게 보이는 피부로 가꾸고 싶다면, 설화수 인삼 과학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자음생 라인에 옳은 답이 있다. 인삼이 가진 생명력을 피부 깊숙이 전달해 주는 자음생 라인으로 가꾸고, 살피고, 보살피며 피부 본연의 힘을 깨우자.

### 자음생아이크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Cream

눈매만 또렷해도 동안으로 보인다. 자음생아이크림은 눈가 피부를 케어 하여 탄탄하고 힘있게 받쳐주는 한방 아이크림. 인삼의 뿌리뿐 아니라 잎과 줄기에서 추출한 성분이 눈가 피부를 케어하고, 눈가 피부를 조밀하게 감싸는 탄탄한 텍스처가 탄력과 촉촉함을 전해 준다. 금색 오브제가 그려진 검정 접시는 여경란 작가의 작품으로 공평아트샵,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 28호 김복근 약기장의 동양미니가야금은 동양국악기제작소에서 만날 수 있다.







자음생 진분유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귀한 인삼 종자유가 윤기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한방 에센스 오일, 자음생 진분유. 윤기를 부여하는 동백유와 피부를 강하게 다져주는 참깨를 생으로 압착해 얻은 호마유까지 더해져 피부 바탕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가꾸는데 도움을 준다.

이은희 작가의 율칠발우오브제는 KODF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자음생크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설화수의 오랜 인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인삼 화장품 기술과 피부 과학이 만난 인삼 과학의 결정체가 바로 자음생크림이다. 인삼의 뿌리부터 열매 그리고 정성스레 달인 인삼수가 더해져 인삼이 가진 자연 에너지의 활력을 피부 깊숙이까지 전달한다. 탄탄하고 윤택한 피부로 가꾸고 싶다면 한방 고농축 인삼 크림, 자음생크림을 만나자.

맑은 소리를 내는 전통 현악기 양금(洋琴)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 28호 김복근 악기장의 작품이다. 동양국악기제작소에서 만날 수 있다.

에디터 김희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최서윤 어시스턴트 손예희, 김아영 도움 주신 곳 동양국악기제작소(02-523-7600), 공평아트숍(02-3210-0071), KODF갤러리숍(02-733-9041)





## 소복소복 눈 쌓인 풍경

‘겨울’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 중 하나가 바로 눈이 하얗게 쌓인 모습이다. 옛사람들 역시 눈이 쌓인 겨울 풍경을 그림으로 묘사했다. 지금부터 나무에 하얗게 눈 내린 ‘그림 같은 풍경’ 속을 거닐어보자.

음식에도 시절 음식이 있는데 그림에 시절 그림이 없겠는가. 겨울에 씹 어울리는, 김장처럼 곰삭은 소재는 무엇일까. 차고 시린 겨울은 초목이 발가벗고 사람은 움츠린다. 겨울을 ‘세한(歲寒)’에 빗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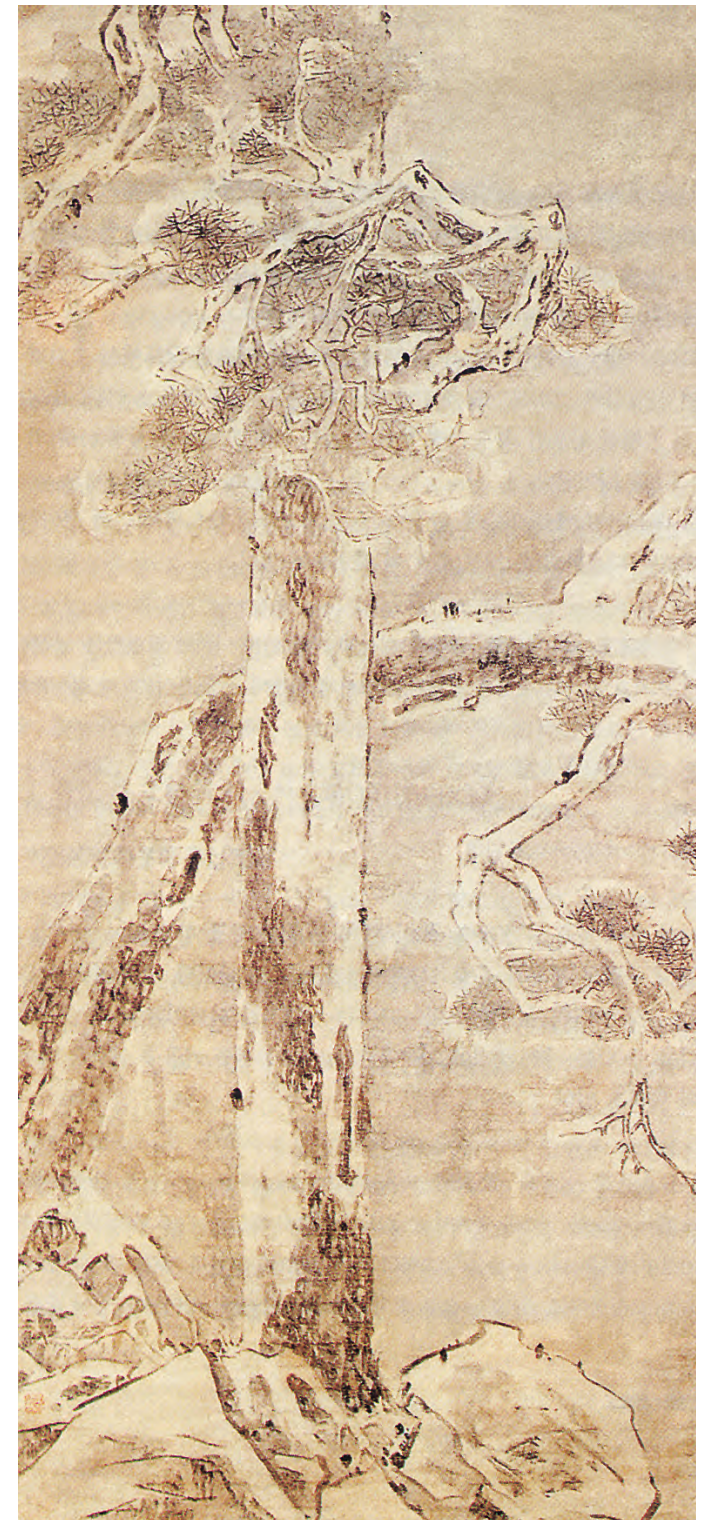
그런데 이 가혹한 세월을 너끈히 넘기는 친구가 있으니, 옛사람들이 꼽은 ‘세한삼우’, 곧 소나무, 대나무, 매화다. 이들 세 벗이 겨울 그림의 총아다. 세 벗들의 웅찬 기상을 부추기는 것도 있다. 눈이다. 눈은 늘 찬조 출연한다. 하여 눈이 소나무에 쌓이면 ‘설송’, 대나무에 내리면 ‘설죽’, 매화에 비기면 ‘설중매’다.

### 소망을 품은 절개 ‘설중매’

겨울 소나무 그림 중에 으뜸으로 치는 ‘설송도’를 보자. 18세기 문인화가 이인상의 대표작이다. 어둑하니 저물 무렵, 소나무들이 눈을 푸지게 뒤집어썼다. 한눈에 척 봐도 노송이다. 폭설에 덮인들 사철 푸른 나무가 욱되겠는가. 곧추 선 소나무의 기색이 웅골지고, 현결찬 기상이 밖으로 뻗는다. 뒤에 허리 흰 소나무도 보인다. 쓰러질 듯해도 끝까지 양버티는 품새다. 만고풍상을 겪은 소나무의 인내가 보는 이의 동조를 자아낸다.

소나무는 무리 가운데에서도 홀로인 나무다. 백설이 온 땅을 덮을 때 혼자 청청한 나무다. 소나무는 아박하기 짝이 없는 바위들, 그 틈새에서 자란다. 아기가 태어나 금줄을 치고, 장을 담가 향아리에 두르던 것이 솔가지이고, 임금의 관(帽)이 된 것이 또한 솔 등치다. 소나무는 빈부가 나누어 쓰고 귀천이 더불어 아낀다. 그 끈기는 민초의 생김새요, 그 지조는 군자의 됄됨이다. 또한 소나무는 한 해의 첫걸음인 정월을 상징한다. 새해가 오면 소나무의 덕성이 오롯하다.

구태여 눈을 뒤집어쓴 소나무를 그리는 화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꽃이 피는 시절에는 소나무의 푸름이 시쁘다. 그러나 만물이 시드는 겨울이면 상황은 달라진다. 늘 푸른 나무의 무성함이 눈보라 속에서 빛난다. 등 마스한 날이 아닌, 추운 날의 지조야말로 도탑다. 눈 속의 소나무는 변덕이 죽끓듯 한 세상을 나무라고, 빼어난 재목은 가혹한 뒷밭에서 자란다고 귀땀한다. 여기서 겨울의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보자. 눈 덮인 땅에도 소망은 움트고, 추위 속에도 별은 남아 있다. 조선 말기의 화가 조중묵이 그린 〈눈 온 날〉은 겨울 풍경을 그린 그림임에도 작은 봄의 꿈을 살며시 숨기고 있다. 그 소망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이 ‘설중매’다.



### < 설송도 >

이인상, 종이에 수묵, 117.2×52.4cm,  
국립중앙박물관



창 밖으로 하얀 눈이  
 흩날린다. 어느덧 넓은 들판  
 위로 짐승의 발자국 하나  
 없는 소복한 눈이 쌓인다.  
 그러나 창 밖으로 펼쳐지는  
 겨울 풍경속의 주인공은  
 눈 혼자만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은 눈을 맞으며 홀로  
 꽃꽂이 서 있는 나무를  
 보았고, 눈을 뜨겁게 뚫고  
 올라온 한 송이 매화를 보며  
 봄이 오는 기운을, 소망을  
 담아냈다.

눈 속에서 핀 뜨거운 생명력 '매화'

폭설이 몰아친 산 중에 집이 한 채, 마을로 나가는 길은 끊겼다. 선비가 팔을 피고 모양 좋게 흰 나무  
 들을 쳐다본다. 키가 큰 쪽은 소나무, 솔잎에 눈꽃이 피어 밤송이 같다. 그 곁에 낮게 팔 벌리고 선  
 두 그루의 나무는 되물을 필요 없이 매화다. 하얀 살결에 옥 같은 얼굴로 피어날 매화라야 늠름한 소  
 나무와 짝이 된다. 매화는 아직 꽃 소식이 없다. 저 설중매는 늦겨울을 지나 기지개를 켜고 봄이 올  
 무렵에야 수줍게 고개를 든다. 하지만 차가운 눈 속에서 매화는 뜨겁다. 이른 꽃을 피우려 그의 몸  
 은 용을 쓴다. 견디고 견뎌서 피어난 '열(熱) 꽃'이 매화다. 눈여겨보며 깨닫는다. 매화의 몸에서 겨  
 울 눈이 녹고 있음을.

홀로 견디는 꽃꽂함 '대나무'

대나무는 어떤가. <은사의 겨울나기>는 조선 후기 화가 강희언이 그린 겨울 산수화의 전형이다. 산  
 아랫도리에 숨어서 사는 선비, 그를 둘러싼 것은 적막이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세상과는 담을 쌓았  
 다. 몸서리치는 침묵을 받아내는 은사는 대나무와 매화다. 보라, 보살핌 없이도 자욱하게 자라나 추  
 위와 맞선다. 대나무의 절개는 들먹이지 않아도 안다. 일찌감치 대나무는 울었다. '내 기꺼이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은/ 별과 나비를 붙들지 않으려 함이네' 잔설이 산등성이와 지붕에서 희끗한데, 설중  
 매는 이른 암향을 풍긴다. 매화와 대나무의 몸가짐은 은사와 닮았다. 홀로 견뎌서 혼자 이룬다.  
 시절 그림 중에서 겨울 그림은 무엇을 알리는가. 겨울 지나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에 앞서 겨울이  
 있음을 비로소 깨우친다. S

에디터 신정희 글 손철주(미술평론가)



<눈 온 날>

조중묵, 비단에 수묵, 28.9×21.3cm,  
 개인 소장

<은사의 겨울나기>

강희언, 종이에 담채, 22.8×19.2cm,  
 간송미술관







# 정성스러운 손길로 아름다움을 되찾다

귀한 성분을 바탕으로 한 설화수 제품과 심신을 조화롭게 해 주는 전문 테라피스트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만나 상생의 효과를 일으킨다.



요즘같이 차가운 바람에 많이 노출되는 겨울에는 특히 피부결이 많이 거칠어지고 건조해진다. 거칠어진 피부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붓이 되어 더욱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푸석푸석해진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설화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설화 본생'이다. 피부에 영양을 집중 공급해주는 고영양 트리트먼트로 설화수 스파의 시그너처 프로그램이다.

설화수 스파는 전통의 지혜를 적용해 다양한 성분이 서로 상생하며 피부를 아름답게 구현해내는 설화수 제품을 이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트리트먼트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작약, 연자육, 옥죽, 백합, 지황의 5가지 성분이 들어간 자음단과 지골피, 감국, 사삼, 진피, 고본, 목단피, 의이인의 7가지 식물 성분이 들어 있는 자음보위단을 따뜻하게 찌내어 기초 관리를 시작한다. 이후 인삼 뿌리와 진생베리가 함유돼 있어 피부를 강화시키는 설화수 자음생크림과, 각종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인삼씨 에센스 오일인 자음생 진본유로 건조하고 푸석해진 피부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준다. 설화수 스파는 귀한 성분을 재료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통적이며 과학적인 도구를 마사지틀로 사용해 그 효능을 높여주고 있다. 설화본생 프로그램에서는 옥을 이용해 이마와 볼 주변, 관자놀이 등의 부위들을 고루 마사지해 준다. 옥은 <동의보감>에 약석으로 기록될 정도로 미네랄을 다량 함유해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 옥이 가진 차가운 기운은 설화수 자음생 라인인 따뜻한 기운과 만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룬다. S

에디터 신정희 사진 이은숙 도움 주신 곳 설화수 스파(롯데호텔 서울점 02-318-6121)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기와 테라피스트의 정성 어린 손길이 더해져 지친 피부에 활력을 더해주는 설화수 스파.

During winter, the skin is frequently exposed to cold air, and its texture becomes rough and dry. If you leave your skin at such a state, it will suffer from dehydration as the spring begins. One of the Sulwhasoo programs that can help you is the 'Ginseng Full Story'. It is Sulwhasoo SPA's signature program on intensive nourishment treatment. Sulwhasoo SPA applies the wisdom of oriental medicine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treatment. Its various programs use Sulwhasoo products, which contain active ingredients that will improve the beauty of your skin through 'balancing'. The programs begin with the warm balls of Jaumdan, the combination of five traditional herbs(Paeonia japonica, Nelumbo nucifera, Polygonatum officinale, Lily, and Rehmannia glutinosa), Jaumbowidan, and the formula of seven traditional herbs(Lycium chinense Root, Chrysanthellum indicum, Radix adenophorae, dried tangerine peel, Angelica tenuissima root, Moutan cortex, and Coix lacryma-Jobi ma-yuen seeds). After that, the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containing ginseng roots and ginseng berries for skin)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ingredients for the replenishment of skin) are used in order to supply sufficient nutrients to dry and rough skin. On the other hand, the Ginseng Full Story Program uses a jade to massage the forehead, cheeks, and temples. The jade is mentioned in the Donguibogam(a medical book published by a doctor Heo Jun in the Joseon Dynasty) as a medicinal rock rich in minerals for healthier-looking skin.

\*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http://www.sulwhasoo.co.kr)  
롯데백화점 잠실점(4층)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의 02-411-0262  
롯데호텔 서울점 운영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의 02-318-6121



## 고서에 숨겨진 고운 피부의 비결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재료들에서 그 해법을 얻었다.  
옛 선조들의 지혜를 만나보다.



〈동의보감〉이나 〈규합총서〉, 〈본초강목〉등을 살펴보면 옛 여인들의 미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별다른 화장품도 없던 우리 조상들의 경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피부를 가꿨다는 점이 가장 돋보인다.

〈본초강목〉에서는 피부를 곱게 만들어주는 재료로 ‘울무’를 소개하고 있다. ‘울무는 맛이 달고 성질은 약간 차며 독이 없고, 비장을 튼튼하게 해 주고, 위와 폐의 기능을 도우며 열을 내려주고, 소변을 원활하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사마귀를 없애준다고 한다. 울무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무기질 등의 영양이 풍부해 피부에 바르면 미백과 피부 탄력 증진은 물론 늘어난 모공을 조이고 묵은 각질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늘날에도 미용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초강목〉에는 살구씨를 이용한 치료 방법이 200여 가지나 기록돼 있을 정도로 쓰임새가 많다. 특히 살구씨를 갈아서 기미, 주근깨 등 피부 색소 침착, 종기, 부스럼 치료에 많이 사용되었다. 또 피부를 하얗고 윤기 있게 하기 때문에 옛 여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일찍이 궁중 여인들은 살구씨로 피부를 가꾸었다. 또 〈동의보감〉에 ‘녹두를 비누처럼 사용하면 얼굴이 절세미인처럼 옥같이 예뻐진다’고 기록될 정도로 예부터 녹두가 피부 미용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다. 한방에서 녹두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해독하고 열을 내리며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녹두에 포함된 단백질은 다른 곡류보다 피지 제거 기능이 뛰어나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경험방〉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옛 왕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경험방〉을 1927년에 어느 일반인이 입수해 등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책 내용이 대체로 〈동의보감〉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책의 앞부분에는 오장(五臟)을 중심으로 단방 요법이 소개되어 있고 특히 피부 질환들을 소개하면서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 있는데, 먹어야 할 약물 내용도 같이 나열하고 있다. 조병(燥病)은 몸의 진액이 부족해 피부에 윤기가 없고 거칠어지면서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피부에 윤기가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피부미용을 해치는 공공의 적인 셈이다. 그렇다면 당시 피부 미용을 위해 처방했던 재료들은 무엇이었을까?

산약(山藥), 일승(一升)을 절구질하여 잘게 한 것, 은행알 1개를 곱게 뺀 것, 우유(牛乳) 한 근을 처방해 피부를 다스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다른 처방 약재로는 맥문동, 생지황, 숙지황, 천문동, 당귀, 황기, 황금(黃芩 또는 황금을 술에 담근 주금), 팔루인, 도인, 승마, 진피, 마자인, 홍화, 오미자, 감초 등이다.

이 두 가지 처방은 옛 왕실에서 보관해 전해 내려오는 피부 미용 관련 처방으로 조선시대에도 활용됐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피부가 건조해졌을 때 궁중의 왕비나 궁녀들이 피부 미용을 위해 이 처방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5

에디터 한정희 참고도서 〈한방화장품의 문화사〉 (김남일, 들녘) 도움 받은 곳 우일요(02-763-2562),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오색채담(02-566-5375)





| 뮤지컬 |

## 환상적인 라인업을 자랑하는 뮤지컬 <삼총사>

뮤지컬 <삼총사>는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17세기 프랑스 시골에서 파리로 올라온 달타냥과 삼총사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남자들의 우정과 사랑, 정의가 박진감 있게 펼쳐진다. **에디터 신정희**



올해 일본 공연에서 탄탄한 작품성과 흥행성으로 큰 화제를 모은 <삼총사>가 다시 돌아온다.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완성된 무대, 의상, 분장, 소품 등 화려한 볼거리에 박진감 넘치는 검술 및 액션 장면, 유럽의 웅장하고 오페라적인 음악이, 어느 대작과는 다른 뮤지컬 <삼총사>만의 매력으로 손꼽힌다. 또 남자들의 우정과 사랑, 정의가 박진감 있게 펼쳐진다.

지난여름 일본 도쿄 공연(시부야 분카무라 오차드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뮤지컬 <삼총사>는 이번 성남 공연에서도 업그레이드된 무대 예술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뮤지컬 <삼총사>는 신성우, 유준상 등 2009년 초연한 배우들이 뭉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번 달타냥 배역에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아시아를 사로잡은 'Jun, K(2PM)'와 일본 공연에서 기립박수 신화를 이뤄낸 '송승현(FT아일랜드)'이 무대에 오른다.

또한 <잭 더 리퍼>, <보니 앤 클라이트>까지 최고의 2013년을 보낸 뮤지컬 배우 '박진우'가 캐스팅되었으며, 2009년 초연을 시작으로 사랑을 받아온 '엄기준'도 함께 캐스팅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여기에, <잭 더 리퍼>의 히어로 다니엘 역으로 3년 연속 캐스팅되며 뛰어난 가창력과 내면 연기로 관객들에게 각인된 '성민(슈퍼주니어)'이 달타냥으로 새로이 합류해 삼총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시** 2월 2일까지 **장소** 성남아트센터 **문의** 02-764-7857 **관람료** VIP석 12만원, OP석 10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



2011년 흥행작으로 화제를 모은 뮤지컬 <캐치 미 이프 유 캔>이 돌아왔다. 천재 사기꾼 '프랭크 아비그네일 JR'의 실화를 영화로 만들어 큰 화제를 모은 시나리오를 이번엔 뮤지컬 무대에 올린다. 주인공 역에는 엄기준과 슈퍼주니어 규현이 캐스팅되었다. **일시** 2월 9일까지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 **문의** 1544-1555 **관람료** VIP석 12만원, R석 10만원, A석 6만원, B석 4만원

### 뮤지컬 <고스트>



영화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고스트>가 뮤지컬로 되살아난다. 영원한 사랑을 최첨단 기술로 선보이는 이 뮤지컬은 영혼이 된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구현해낸다. 또 전설이 된 명곡 'Unchained Melody'도 놓칠 수 없다. **일시** 2월 28일까지 **장소** 디큐브 아트센터 **문의** 02-577-1987 **관람료**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 뮤지컬 <맘마미아>



세계적인 팝 그룹 아비(ABBA)의 히트곡 22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했던 <맘마미아>의 오리지널 첫 내한 공연이다. 숙련된 배우들이 <아이 해브 어 드림> <생큐 포 더 뮤직> 등 친숙한 멜로디들을 들려준다. **일시** 3월 23일까지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문의** 1544-1555 **관람료**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 뮤지컬 <영웅>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총장 안중근이 1909년 2월에 단지동맹을 맺고 이토 히로부미 암살, 1910년 3월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영웅의 심리적 인간적 모습을,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무대에 올린다. 안중근 역에는 JK김동욱, 김승대, 강태율이 캐스팅되었다. **일시** 2월 16일까지 **장소**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1566-1823 **관람료** 영웅석 7만원, 동지석 5만원, 독립군석 3만원

| 콘서트 |

## 클래식계의 스타 임동혁 리사이틀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1996년 국제 청소년소팽콩쿠르에서 2위에 입상하며 국내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스타로 발돋움했다. 그런 그가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와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한다.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2014년 2월 1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형제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한 임동혁은 모스크바 음악원을 졸업한 후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세계 3대 콩쿠르를 모두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임동혁은 지금까지 쇼팽, 프로코피예프, 라벨 등 낭만적이면서 화려한 곡들을 주로 선택했다. 해외 유수 언론에서 극찬하는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 군더더기 없는 테크닉, 다양한 색채감을 표현하는 음색' 등 그의 장기는 낭만주의 작품에서 가장 빛을 발했고, 그 자신도 이런 작품들에서 가장 편안하고 거침없는 연주를 보여주었다.

그런 그가 이번 리사이틀을 위해서 꺼내든 프로그램은 드뷔시, 바흐, 베토벤, 슈베르트 등이다. 그의 연주 스타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가우뚱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의 연주곡 선택 배경에 대해 그는 '가장 임동혁스럽지 않은 스타일로 잘 치고 싶은 곡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그가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런 프로그램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영리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콩쿠르형 신동의 이미지를 벗고 성숙한 연주자로 가는 교차점에서 있는 그에게도, 그의 터닝포인트를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공연이 될 것이다.

**일시** 2월 18일까지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1544-1555 **관람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 빈 소년 합창단 신년 음악회



52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빈 소년 합창단이 내한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빈 소년 합창단 역사상 최초의 한국인이며 여성 지휘자인 김보미 씨가 이끄는 모차르트 팀이 내한해 더욱 큰 기대를 모은다. **일시** 1월 18~19일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1577-5266 **관람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 아르츠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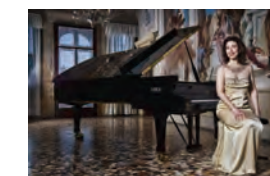
'걸어 다니는 종합 예술사전', '유럽 도슨트계의 전설'로 불리는 윤운중이 진행하는 미술과 음악을 접목시킨 콘서트다. 이번 공연에서는 유럽 미술관과 박물관의 여러 작품들을 회화, 꿈, 평안, 진실, 사실, 가족, 행복, 사랑 등으로 나누어 감상하고, 그에 따른 음악의 연계성도 들을 수 있다. **일시** 2월 9일 **장소**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 **문의** 02-2658-3546 **관람료** R석 4만5천원, S석 2만5천원

### 윌른 필하모닉 내한 공연



전통의 '독일적 음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윌른 필하모닉이 내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휘자 마르쿠스 슈텐츠가 참가해 탄생 150주년을 맞이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남긴 불후의 명곡 <알프스 교향곡>을 지휘한다. **일시** 2월 15일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99-5743 **관람료** R석 23만원, S석 18만원, A석 13만원, B석 8만원, C석 5만원

### 안젤라 휴이트 내한 공연



이치적인 해석과 따뜻한 품격으로 세계 음악 시장에서 '21세기 바흐 여제'로 추앙받는 캐나다 태생의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이트가 2년 만에 네 번째 내한 공연을 갖는다. 바흐스 페스티벌의 면모가 돋보이는 '고전·낭만주의의 곡 해석도 엿볼 수 있다. **일시** 2월 25일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02-599-5743 **관람료** R석 10만원, S석 7만원, A석 4만원



### 세계적 인물들과 날아오르다 〈점핑 위드 러브〉전

라이프 매거진 최다 기록인 101번의 작품을 표지에 실은 작가 필립 할스먼. 기존 인물사진의 개념을 깨고 현대 인물사진의 시초가 된 필립 할스먼의 전시가 국내 최초로 개최된다.



마릴린 먼로, 오드리 햅번, 존 F 케네디, 사갈, 히치콕 등 명사들이 폴짝 뛰어 오르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세계적인 사진작가 필립 할스먼(1906~1979)의 사진 1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점핑 위드 러브〉전이다. 하늘을 향해 힘껏 뛰어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1940~60년대 암울했던 시대를 통과하던 사람들에게 유머와 에너지를 선사한 작가로 평가 받는 사진가다. 할스먼은 유명인들의 내면에 숨겨둔 어린이가 같은 친진함을 끌어내기 위해 점핑 컷을 시도했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물론 영국의 윈자공,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 영화감독 히치콕,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그의 카메라 앞에서 뛰었다. 세계적인 명사들의 평소 보기 힘든 개구쟁이 같은 표정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마릴린 먼로의 사진은 사후 50주년을 맞아 공개되는 미공개 컷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우리나라 스타들의 점핑 사진도 감상할 수 있다.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역대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영화배우 안성기 등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스타들의 점핑 사진도 곁들여져 보는 재미를 더한다. 또 관람객들이 직접 뛰어볼 수 있는 점핑 체험 존도 마련돼 있어 점핑 컷을 촬영해 볼 수 있다.

일시 2월 23일까지 장소 세종문화회관 전시장 문의 02-532-4407 관람료 성인 1만2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7천원

### 〈라이언 맥긴리 - 청춘, 그 찬란한 기록〉



미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이자 뉴욕이 반한 세기의 아티스트, 라이언 맥긴리(Ryan McGinley) 사진전이 국내 최초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자유와 열정, 해방과 순수, 그리고 불안, 방향 등 젊음의 내면에 공존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사진으로 표현한 라이언 맥긴리의 대표작 시리즈가 모두 공개된다. 일시 2월 23일까지 장소 대림미술관 문의 02-720-0667 관람료 6천원

### 〈피카소에서 제프 쿤스까지〉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 알렉산더 칼더, 앤디 워홀 등 미술 거장들과 론 아라드 등 디자이너가 만든 특별한 주얼리 200여 점이 공개된다. 150여 명의 예술가들이 만든 주얼리 작품은 또 다른 작품 세계를 드러내며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2월 23일까지 장소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문의 02-790-3763 관람료 성인 1만2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8천원

### 애니 레보비츠 사진전



〈베니티 페어〉 〈보그〉와의 작업에서 많은 인물들의 사진을 남긴 애니 레보비츠의 작품이 한국을 찾았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를 비롯한 연예계 스타는 물론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등 유명 인사들의 모습들도 만날 수 있다. 일시 3월 4일까지 장소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문의 02-6263-2621 관람료 성인 1만5천원, 초·중고생 1만원

### 〈히로시 스기모토: 사유하는 사진〉 전



현대 사진의 거장 히로시 스기모토의 대규모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작가의 대표작인 사진 연작과 조각, 영상을 포함한 49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삶과 의식의 기원을 탐구하고 정신성 회복을 추구하는 그의 예술 세계를 접할 수 있다. 일시 3월 23일까지 장소 삼성미술관 리움 기획전시실 문의 02-2014-6900 관람료 일반 7천원, 초·중고생 4천원

### 올겨울 감동의 에세이 〈내가 엄마의 부엌에서 배운 것들〉 〈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말아〉

추운 날씨 탓에 마음까지 스산해지는 계절이다. 언 마음까지도 따스하게 녹여줄 감동의 에세이와 함께라면 더 이상 겨울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 〈요요꼬 아내와의 칩거〉



1970년 제64회 아쿠타가와상 수상작 〈요요꼬〉와 당시 심사에서 한 표 차로 2위를 차지한 〈아내와의 칩거〉를 묶은 후루이 요시카치의 대표선집이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 출간됐다. 후루이 요시카치는 인간 내면에 깊숙이 파고들어 유연하고 감각적이지만 날카롭고 생생하며 단단한 서정적 문체로 현대인의 불안을 세밀하게 그려낸다.

지은이 후루이 요시카치 출판사 창비

### 〈굿바이 작심삼일〉



지금보다 더 나은 변화를 갈망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흥미로운 과학적 실험 사례들을 토대로, 성공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과 이별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 제레미 딘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방문하는 심리학 사이트 'PsyBlog'의 설립 전문가다.

지은이 제레미 딘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 〈미처 다 하지 못한〉



대중의 바로미터인 방송이나 공연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늘도 김광석을 듣고, 노래하고, 추억한다.' 누구나 저마다의 '김광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신화'처럼 기억하는 김광석의 참된 목소리인 걸까. 여기 저마다의 신화에 가린 한 인간의 진실한 기록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지은이 김광석 출판사 예담

### 〈강신주의 감정 수업〉



스피노자는 〈에티카〉 3부에서 인간의 감정을 크게 48가지로 분류하고, 그와 유사한 감정들을 비교하면서 파고들었는데, 인간의 감정을 이토록 세분해서 소개한 철학자는 없었다. 대중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철학자 강신주 박사는 지이를 읽고 방향하는 현대인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는 바로 자기 감정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지은이 강신주 출판사 민음사

아들은 풀리처상을 수상한 저명한 중군기자로 승승장구하지만, 그가 무차별적인 테러와 비극이 있는 위험한 곳만 찾아다니는 것은 실은 증오하던 어머니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돌연한 죽음, 그리고 뼈아픈 후회였다. 그 무렵 아기를 간절히 원했던 아내 퍼닐라와 시험관 시술을 받는다. 아들은 아내와 아이를 위해 엄마의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며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다. 〈내가 엄마의 부엌에서 배운 것들〉은 가족들을 위해 매일 부엌에서 서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그 음식을 먹고 자란 우리의 유년 시절에 바치는 감동적인 헌사를 담았다. 결혼 20주년 기념일, 아내가 불치병을 선고받았다. 말쑥하던 사람이 허룻밤 사이에 사치미비가 되었고, 연이어 폐, 한쪽, 눈 한쪽을 잃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혼자 있는 시간을 포기했다. 발병 초기, 사지가 마비된 아내를 간병하다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터로 향하던 어느 새벽, 낭떠러지와 맞닿은 고속도로를 달리며 남편은 그만 핸들을 꺾어 이 고된 고통에서 벗어날까 고민했다.

그런 그의 머릿속에 아내와 꿈을 포기하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졌어도 밝게 제 몫을 감당하고 있는 세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생각한다. 그 만들 수 없으니 사랑하려고, 사랑하니, 살아내야 하는 거라고...

〈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말아〉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내의 곁에서 남편이 세내려간 6년 동안의 일기를 모은 에세이다.

〈내가 엄마의 부엌에서 배운 것들〉 지은이 매튜캐슬러 출판사 문학동네  
〈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말아〉 지은이 김재식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 공연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뮤지컬 <해를 품은 달>

2012년 드라마로 방영되어 큰 화제를 모은  
<해를 품은 달>이 뮤지컬로 다시 돌아온다. 한 편의 수목화를  
보는 듯한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팬들의 기대를 모은다.



거스를 수 없는 운명..... 그래, 사랑이다!\*

# 뮤지컬 해를 품은 달

2014년 1월 18일(토) ~ 2월 23일(일)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김다현 전동석 규현(슈퍼주니어) 린아 정재은 서현(소녀시대) 강필석 조휘  
문의 인터파크 1544-1555 오픈리뷰 1588-5212



###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해를 품은 달>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람 일정 2월 예정

공연 장소 예술의 전당 CJ토월극장

공연 티켓 R석 6명(인 2매)

\* 티켓은 관람 당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를 품은 달>은 2011년 국내 출간과 동시에 1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아시아 전역에 번역되어 출판된 정은필 작가의 베스트셀러 소설이다. 2012년 MBC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아름다운 영상미와 새롭게 각색된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42.2%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이뤘으며, 일본 NHK 방송 후 한류 돌풍을 일으켰다. 게다가 2013년 언론과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방향성을 제시한 뮤지컬까지, <해를 품은 달>은 국내를 비롯한 해외까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가상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왕과 액반이 무녀의 사랑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가미한 뮤지컬 <해를 품은 달>은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작곡상을 수상한 원미술 작곡가가 팝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음악들을 편성하여 극 전체를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간다. 특히 주인공 흰과 연우, 양명의 인연은 한국의 전통미가 느껴지는 조각보를 통해 무대에 표현되고, 그들의 아름답고 극적인 사랑은 한 편의 움직임이 수목화를 보는 듯한 영상으로 펼쳐진다.

현대와 전통무용의 조합으로 이색적이고 역동적인 군무가 한데 어우러진 안무를 비롯하여, 한국적인 미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색채들로 구성된 무대, 조명, 의상, 영상 등은 대한민국 고유의 정서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표현한다.



뮤지컬과 드라마, 예능 등 공연과 방송을 넘나들며 실력과 흥행성을 인정받아온 뮤지컬 스타 김다현과 <해를 품은 달>로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하고, 2013 뮤지컬계를 뜨겁게 달군 전동석이 초연에 이어 다시 캐스팅되었다. 또한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슈퍼주니어 규현도 새로 합류하였다. 또한 뮤지컬 배우이자 연기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린아와 걸그룹 소녀시대의 막내 서현도 캐스팅되었다. S

에디터 신정희 도움 주신 곳 ㈜쇼플레이(www.show-paly.com)



## 에센스의 역사를 다시 쓰다

설화수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윤조 에센스.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에센스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설화수 윤조에센스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지난 1997년 4월 처음 출시된 이후 한국뿐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등 전 세계 고객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설화수의 넘버원 에센스로 자리 잡았다.

윤조에센스는 부스팅 에센스 제품으로 세안 후 첫 단계에 발라 다음 단계 제품의 효과를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지녔다. 제품에 함유된 고농축 성분이 피부의 건조한 기운을 다스려 피부가 상실했던 윤기와 혈색을 케어하도록 도와주며 다음 단계 제품들의 흡수를 돕고 효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윤조에센스 명성의 비밀은 역시 좋은 원료와 탄탄한 기술의 결정체라는 점에 기인한다. 작약, 연자육, 옥죽, 백합, 지황의 다섯 가지 한방 식물을 추출하여 섬세하게 조합한 자음단(滋陰丹)으로 피부 영양의 상생을 도와 윤택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이 된다. 또 맥문동과 감초 추출물을 기본 성분으로 제조된다. <동의보감> 탕액 편에 따르면 감초뿌리는 9가지 흙의 기운을 받아 72가지 광물 성분과 1천200가지 식물 성분 등 모든 원료를 조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맥문동의 덩이뿌리는 자음의 효능을 더욱 깊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또한 피부의 흐름을 좋게 하며 윤택감을 주는 황기가 함유돼 있어 피부에 윤기와 혈색을 찾아준다. 게다가 풍부한 수분감으로 피부를 윤기 있게 관리해 주며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으로 피부 타입과 연령대에 관계없이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다.

설화수에서는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 이벤트도 진행한다. 백화점에서 윤조에센스 90ml를 구입하면, 고급 무지수첩인 '윤조 수첩'과 가죽 북주머니에 담은 윤조, 자음생, 자음생아이, 미안 라인으로 구성된 베스트 4종 샘플은 물론 2~6월 동안 월 1회 매장을 방문하면 샘플을 증정 받을 수 있는 샘플링 카드도 선사한다. 그동안 설화수 윤조에센스를 사용했거나 건조한 피부에 영양을 더해 줄 에센스를 찾고 있다면 특별한 혜택까지 더해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 S







page 22 | **Quality Life**

The Korean lunar calendar consists of 24 turning points, which start from January, and each turning point has unique rituals and folk games. The foundation of these turning points has already been completed during the Era of the Three Empires. It is based on the history of agricultural society. Furthermore, the most important event in the lunar calendar is New Year's Day. This issue introduces the folk culture of the New Year's Day in order to explore the humble, albeit humorous, thoughts of the Korean ancestors behind the 24 turning points.



page 38 | **Seeing in Detail**

This issue explores the five traditional colors of Korea, as well as the color white, used as subjects in landscape photography. The beauty of white is examined in detail through the pictures of the pure white moon, magnolia, Korean traditional doors, and the old house covered with snow.



page 52 | **World Heritage**

This issue introduces Laliq, a brand name originating from France with 100 years' worth of history. René Lalique, the master of Art Nouveau, produces limited edition fine jewelry, including the elegant and vibrant adornments, based on his original technique in jewelry craftsmanship.



page 58 | **Art Class**

This issue introduces the Mariscal Exhibition, which will be held at the Hangaram Design Art Museum. It is Asia's first exhibition, as well as the largest exhibition of the world renowned Spanish artist and designer, Javier Mariscal. This exhibition highlights the imaginative world of Mariscal, who is also known as the 'art player' due to his depiction of art as a form of entertainment.

page 64 | **Succeed**

The coverage for each of the issues is focused on two people who are successors to a traditional culture. This issue introduces Si In Kim, the embroidery master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 of Gyeongsangbuk-do Province, as well as his daughter, Yoon Jung Goh. The hand skills of Master Si In Kim, who is known for his exquisite embroidery skills and for being a direct descendant of Sir Gyeomam Un Yong Ryu of Andong Hahoe Village, have been succeeded by his daughter.



page 70 | **The Thesaurus of Sulwha**

This issue introduces a food performance by Sulwhasoo involving ingredients that protect the body and skin during winter, including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Harmonizen Regenerating Line, Snowise Whitening Line, Gentle Cleansing Oil with dried tangerine peel extract, and Overnight Vitalizing Mask with pomegranate extract.



page 80 | **Sulwhadogam(雪花圖鑑)**

Sulwhadogam is the story of traditional paintings that focuses on what makes people happy. This issue introduces landscape paintings covered in snow, such as pine trees, which symbolize winter. Furthermore, the Korean ancestors' sources of inspiration that represented winter were pine, bamboo, and plum blossoms, which were also combined with snow.



page 86 | **Sulwha Science**

Sulwha Science introduces the scientific life that conveys the wisdom of Korean ancestors on beauty, customs, and everyday life. This issue delves into the common goals among cosmetics, topical medications, oral medications, various psychological therapies, and skincare massages concerning health, skin, mental health stability, and cognitive enhancement based on the Dongui Bogam (a medical book published by a doctor Heo Jun in the Joseon Dynasty).





##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4년 2월 15일까지 (뮤지컬 관람권 응모 마감은 1월 30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미안피니셔, 뮤지컬 <해를 품은 달> 관람권
- 당첨자 발표** 2014년 3/4월호 독자 선물 당첨지란 참조
- 문의** 02-709-5525



### 설화수 미안피니셔(5명)

아침과 저녁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여 피부의 생(生) 윤기를 살려주는 제품입니다. 녹차와 함께 포제한 홍삼 성분이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 하루 종일 생기가 있는 피부 상태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문의 080-023-5454



### 뮤지컬 <해를 품은 달> 관람권(6명)

드라마의 감동을 재현한 뮤지컬 <해를 품은 달>의 공연 관람권을 6명(석, 1인 2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2월 중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관람 당일 예술의 전당 C1도 월극장 공연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92페이지 참조

### 11/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 설화수 미안피니셔(5명)

- 최간남 강원 춘천시 후평3동
- 강효숙 서울 용산구 도원동
- 최현경 전주 완산구 효자동
- 김경선 서울 서초구 반포2동
- 한승희 대구 수성구 지산동

#### 뮤지컬 <오셀 어메이징> 관람권(7명)

- 김정숙 서울 송파구 잠실3동
- 이근도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길
- 임성은 서울 서초구 반포2동
- 서선옥 경기 의왕시 포일동 668
- 최서윤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 서계영 부산 동래구 온천동
- 박혜영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 11/12월호 당첨자 선물은 1월 30일까지 보내 드립니다.